

Korean Anabaptist Journal

한국아나뱃티스트저널

2015 여름 통권 10호

● 발행처: 한국아나뱃티스트펠로우십(Korea Anabaptist Fellowship) ● www.wkaf.net ● 발행인: 전남식 ● 편집장: 김복기
● 편집위원: 배용하 한준호 권세현 ● 발행일: 2015.3.31 ● 창간일: 2012. 7. 12 ● 주소: 충남 논산시 가야곡면 양촌리 520
● 전화: 070-4027-2200 ● e-mail: byh1424@gmail.com ● 온라인 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홈페이지에 신청해주세요.

편집인의 글

함께 세워져 가는 집으로

<지푸라기>

정호승

나는 길가에 버려져 있는 게 아니다
먼지를 일으키며 바람 따라 떠도는 게 아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당신을 오직 기다릴 뿐이다
내일도 슬퍼하고 오늘도 슬퍼하는
인생은 언제 어디서나 다시 시작할 수 없다고
오늘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길바닥에 주저앉아 우는 당신이
지푸라기라도 잡고 다시 일어서길 기다릴 뿐이다
물과 바람과 맑은 햇살과
새소리가 섞인 진흙이 되어
허물어진 당신의 집을 다시 짓는
단단한 흙벽돌이 되길 바랄 뿐이다



한 준 호 형제
주빌리공동체교회

어수선한 시국이라 그런지 고민은 많은데 뭐라 명확한 답을 내리지 못하겠고, 때로는 답이 무엇인지 알겠으나 현실의 상황은 녹녹치 않습니다. 아나뱃티스트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 시간이 지날수록 얻은 답보다는 질문들이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숨이 턱까지 차오를 지경입니다. 마

치 지푸라기와 같이 보잘 것 없어 보입니다. 특별히 지난 몇 달의 상황들은 맘을 더 무겁게 만들고 있습니다. 세월호 때와 마찬가지로 메르스 사태에서도 여지없이 드러난 정부의 무능과 이름만 대면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신학교 교수들의 표절문제 등 여기저기서 기독교의 자정능력이 무너져있음을 여실히 드러내는 사건 사고들이 홍수와 같이 편만합니다.

이런 상황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덧 10호를 맞이하는 이 저널이 이런 고민을 함께 하고 나누며, 먼 곳에서나마 함께 하는 지체들의 소식을 전하고 들으며 위로와 권면을 나눌 수 있는 매개체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신학적인 진지한 고민을 담은 글들도, 소소한 일상이 담긴 글들도 서로 어울려 맛깔스러운 풍미를 일궈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런 혼란한 시대일 수록 우리는 성서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를 진지하게 탐구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탁월한 한 개인의 해석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공동체 일원들이 함께 해석해 가는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데 저널이 한 역할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상 속에서 제자로서 살아가면서 겪은 기쁨뿐만 아니라 아픔도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안팎의 크고 작은 소식들을 실으려 노력하였습니다. 소식들이 풍성하기도 하고 때로는 적기도 하지만 그런 맘 알아 이 저널을 읽는 모든 지체들이 기도로서 함께 동참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닥의 지푸라기라도 필요한 이들에게는 지푸라기 하나라도 희망입니다. 게다가 지푸라기들이 함께 엮이고 늘리면 사람과 자연에게 친화적인 집을 짓는 새로운 소재가 된다하지요. 저희들의 글들과 삶이 함께 엮여 그런 집으로 세워져 갔으면 합니다. 사람들이 머물고 싶은 집, 따스한 환대가 있는 집, 정의와 평화와 웃음과 함께 피어나는 그런 집으로 말입니다. 이번 호를 엮기 위해 글을 보내 주시고 바쁜 와중에도 여러모로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합니다.

메노나이트 목사가 되다.

나는 한국에서 최초로 메노나이트교단의 안수를 받은 1호 메노나이트목사이다.

나의 목사안수는 내게 그렇게 감격할 만한 사건은 되지 못한다. 왜냐하면 나는 20대 초반부터 사역자마인드를 가지고 지금껏 살아왔고, 안수라는 형식이 내 삶과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관계에 그렇게 중요한 변화를 준다고 생각지 않았기 때문이다.



문선주 자매
원주 영강세마학교 교목

목사이든, 아니든, 안수를 받았든, 받지 않았든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마인드를 갖는 것은 당연한 성경적 이해이지 않은가?

단지 내 마음 가운데 깊은 감동과 더불어 이 목사안수식에 대한 남다른 이해를 하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내 안수식이 한국의 흔하디 흔한(?) 교단이 아닌, 한국에서는 듣보잡(듣도 보도 못한 잡??) 교단인 메노나이트를 통한 안수식이었다는 사실이다.

나의 메노나이트와의 첫 인연은 선교단체 학생시절 동아시아 선교대회에서 일본 자매랑 가깝게 지낸 인연에서 출발한다. 메노나이트란 말은 일본으로 돌아간 그 자매가 내게 보낸 엽서에서 처음으로 보게 된 글자였다. 자매는 곧 미국에 있는 메노나이트 신학교로 유학을 간다는 소식을 전했다. 나도 막연히 해외유학에 대한 동경이 있던 터라 기회가 된다면 그 친구를 만

나리 메노나이트 신학교에 가볼까라고 스치듯 생각했던 적이 있었다.

두 번째 인연은 선교단체 간사시절 메노나이트교단에서 파송 받아 온 캐나다 선교사 부부랑 함께 살게 되면서 찾아왔다.

그 때만 해도 내가 메노나이트 사람들과 깊이 엮이고 있다는 사실을 추호도 알지 못했고, 메노나이트라는 사람들의 특별한 정체성도 잘 느끼지 못했다.

단지 그들은 신기한 다양한 카드게임을 나에게 전수해 주었고 메노나이트 특유의 아카펠라 노래를 많이 들려준 기억이 전부이다.

하지만 세 번째 인연은 아주 강력한 것이었다. 나의 신학공부에 대한 열망이 극에 달했을 즈음, 함께 동역했던 선교단체 간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미국에서 공부할 마음이 있으면 당장 준비해서 메노나이트 신학교에서 공부하라고.. 대신 유학생들을 돌보면서 지내면 된다는 조건이었다.

메노나이트에 대해 아는 것이라곤 전혀 없고 그저 암모나이트 혹은 다이나마이트의 아류쯤으로만 이해하던 내게 낯설기만한 신학교에서 공부한다는 것이 조금은 두려운 결단이었다. 하지만 나와 동역하던 간사님들이 다니던 신학교인데 이단일까 보라 하는 단순한 믿음으로 미국 유학행을 결심하게 되었다.

하지만 처음 경험하게 된 메노나이트 신학은 내가 들어보지 못한 메시지를 자꾸 세뇌시켰다.

‘평화와 정의’가 바로 그것이다. 처음에는 ‘전도와 사랑’이라는 말을 들을 수 없는 신학교가 이상하게만 느껴졌다. 처음 1년은 내가 정말 제대로 온 것이 맞나하는 생각으로 한발만 메노나이트에 마음을 준 채, 다른 한 발은 언제든지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설브룩 메노나이트 한인교회

지난 12월에 와서 저희 모두에게 많은 도전과 기쁨을 주었던 강영석 형제 가정이 온타리오 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6개월도 안 되는 기간이었지만 6년 이상 교제한 것 같이 많은 정이 들었습니다. 헤어짐이 아쉬워 4월 10일부터 12일까지 2박 3일간 밴쿠버에서 약 3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매닝 도립공원(Manning Park)으로 가족 캠프를 다녀왔습니다. 늘 그렇듯이 캠프만 가면 형제들과 아이들만 신나하고 자매들은 일만하다 오는 것 같아 이번에는 식사를 포함한 모든 것을 형제들이 맡아서 하겠다는 기특한 계획도 세웠습니다. 이것을 처음 제안한 이영근 형제의 감독 및 책임 아래 모든 형제가 함께 열심히 했지만 역시 마지막 정리만큼은 자매님들의 몫이 되어 버렸습니다. 다음 캠프는 마지막 정리까지도 자매들 도움 없이 해낼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북미 주에서 백인들이 원주민에게 행했던 학살과 만행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기독교가 선교라는 미명아래 원주민들의 인권과 자유를 탄압해 왔던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때 받은 상처로 인해 기독교를 증오하는 원주민들이 많은데 북미 주 기독교인들은 이와 관련하여 정식으로 원주민들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빌어야 하며 더 나아가서 원주민의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캐나다와 미국에 있는 메노나이트 교회들은 원주민들과의 관계 개선 및 그들의 영적 회복을 위해 오랜 동안 노력해 왔는데 올해는 5월 30일 부터 6월 3일까지 오타와에서 "진리와 화해를 위한 모임"이 있고 6월 3일부터 6일까지는 미국 휘튼 대학(Wheaton College)에서 관련 심포지엄이 열립니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메노나이트 교회(Mennonite Church of British Columbia)의 초청으로 저희 교회의 이영곤 형제가 이 두 모임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다음호에는 이영곤 형제의 참관기를 기대해 봅니다.

저희 교회가 작년과 올해 많은 이별연습을 합니다. 작년에는 두 명의 식구가 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올해는 두 가정이 동부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4월에 강영석 형제 가정이 온타리오주로 이사를 했고 6월에는 심현준 형제 가정이 New Brunswick 으로 이사할 예정입니다. 빠른 시간 안에 새로운 가정들이 빈자리를 채워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묵묵히 성실히 걸어갈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평화를 전하며...

<http://sbrookechurch.org> (정리:심현준형제)

예수마음교회

금요일엔 돌아오렴, 세월호가족의 증언



예수촌교회와 예수마음교회는 지난 4월 19일 (주일 오후)에 다영이 아빠인 김현동 씨를 모시고 유가족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1년이 넘었지만 변화는 없고 유가족들의 한은 점점 더 커져만 갑니다. 한편 살아야 한다는 현실의 필요에 밀려 희생자들의 가족을 잃어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유가족 중 76명이 크리스천인데 이들이 교회의 무관심으로 교회를 떠난다는 슬픈 소식을 들었습니다.

유가족들이 교회를 떠나고 외면하는 이유는 교회의 무관심과 교회의 실적 중심의 위로가 큰 몫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실제로 슬픔을 당한 사람의 사연을 들어주기만이라도 하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생각이 현실로 다가온 것입니다. 이에 예수촌교회와 예수마음교회는 다영이 아빠를 모시고 북

콘서트를 가졌습니다. 원래는 유가족 중에 단원고 학생들의 언니, 오빠들이 오기로 했었지만, 4월 18일 전날 광화문에서 밤샘 모임과 정부의 무차별 연행으로 인해 올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상열 목사님과 다영이 아빠 두 분만이 오셔서 북콘서트를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모임에 참석했던 김복기 형제의 글 중 일부입니다.

다영이 아빠가 다녀가셨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먼 곳을 다녀가셨다. 두시 부터 조금 전 저녁 여섯시 반까지 함께 이야기를 들으며 감사했던 건, 항상 웃음으로 조근조근 말씀하시는 모습이였다.

대화를 나누면서 발견한 것은 다영이에 대해 이야기 할 때, 현재형 동사로 말씀을 하신다는 점이다. 마음이 아팠다. 아마 본인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조차 모르시는 것 같았다. 우리 다영이가 그랬어요가 아니라, 우리 다영이가 그래요라는 식으로 말이다. 다영이를 보낼 수 없기에 당연한 것인지도 모르지만, 내게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다가왔다.

자식을 떠나보내야하지만, 아직 보내지 못한 아버지의 웃음은 그냥 웃음이 아니다. 그건 살려는 의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몸부림이다.

건강 잘 챙기시라는 말밖에 다른 말을 건넬 수가 없다. 떠나시기 전 한번 안 아드린 게 전부인 이 사람들에게 진실을 인양하기 위해 와주신 건만으로 감사한 하루다.

오늘 4월 중 그나마 가장 감사한 주일을 보낸 것 같다. 위로받기 보다는 위로하라 했건만, 여전히 위로를 받고 있다. 빗길을 달려달려 다시 안산으로 가시는 그 걸음을 축복하며. BK

그렇게 다영이 아빠를 모시고 우리는 함께 울고, 함께 웃었습니다. 모임 중에 다영이가 아빠에게 남긴 카드를 읽으면서 모두가 함께 울었는데, 여전히 그 감정이 가슴 속에서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부디 이 땅 아래에서 위로받지 못한 모든 것을 저 하늘 위에서나마 크게 위로받기를 기도합니다. 유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돌보심과 위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촌, 예수마음, 은혜와 평화교회 연합예배

아나뱃티스트 교회로 있으면서 가장 어려운 점 중 하나는 지역이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서 함께 만남을 갖기 쉽지 않다는 것이지요. 지역적으로 가까운

거리에 있더라도 1년에 한 두 번 연합예배를 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현실입니다. 이에 서로를 향한 마음을 열면 모임이 가능하리라는 생각에 지나 5월 10일 덕소의 은혜와 평화교회 춘천의 예수마음, 예수촌 교회가 함께 연합예배를 드렸습니다. 원래 해마다 5월이면 야외예배를 기획하였는데, 이번에는 세 교회가 함께 하여 더 좋은 예배가 되었습니다.

마음만 갖고 있을 게 아니라, 생각을 열고, 서로를 향해 마음을 열고, 손가락을 움직여 전화로 안부를 묻고, 가능한 시간을 내어 방문할 때 교제의 장이 열리리라 생각합니다. 아주 멀리 있어 모임이 어려울 경우라면, 1년에 한번 혹은 두 번 가장 가까이에 있는 형제교회를 방문하여 함께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마음교회 로고 완성

2013년 3월 예수마음교회로 분가한 이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예배장소도 처음에는 안동규, 정혜란 가정에서 의암호 자락의 평화공원 옆의 KAC 사무실로 옮겨 약 1년 반 가량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올 초에 KAC, MCC 사무실이 새로 단장하면서 예수마음교회도 함께 예배 장소를 옮겼습니다. 지금은 아담하게 꾸며진 공동회의실에서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격주간 월요일 저녁 8시에 중보기도회의 시간도 갖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모든 사람이 볼수록 정감이 있다는 교회 로고를 만들었는데, 예수마음 교회라는 교회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되 글자체를 예쁘게 꾸며보았습니다. 교회의 자매가 직접 고민한 결과, 모든 사람들이 만족하는 교회 간판이 제작되었습니다. MCC와 KAC가 함께하는 기쁨은 물론, 모두가 참여하여 소통하는 가운데 의사를 결정하는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교회 이름처럼, 그리고 예쁜 로고처럼 예수마음으로 자라가는 예수마음교회가 되는 것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2015년 표어는 그리스도의 터 위에 말씀 따라 교회가 되고자 애를 쓰고 있습니다.(고린도전서 3:11)

예수촌교회



▲ 예수촌공동체와 은혜와평화교회가 함께 한 야외예배

은혜와평화교회와 연합 야외예배

지난 5월 10일 춘천의 예수촌 공동체와 덕소의 은혜와평화교회가 함께 야외 예배를 드렸다. 야외예배 장소는 양통 산촌 생태마을 (춘천 사북면 고성리 280-1)인데 숙박시설과 놀이 시설 그리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너른 마당이 있는 곳이었다. 모두 함께 만나는 기쁨과 야외라는 분위기가 어우러져 잔치 기분이 났다. 예배를 잔치처럼! 즐겁고 유쾌한 기분으로 모두가 즐거워 했다.

식사 후 아이들은 보물 찾기, 물풍선 던지기로 신이 났고 형제들은 족구를 하면서 헛발 개발로 땀을 흘렸다. 자매들은 천막 아래서 호호깔깔 웃음꽃을 피우다가 재미있는 사진을 찍었다. 그것은 한 자매가 가진 립스틱을 모두 같이 바르고 카메라 앞에서 포즈를 취한 것이었다. 예수촌 공동체 밴드에



립스틱 질게 바르고

그 사진이 올랐는데 제목은 묘했다. “립스틱 질게 바르고~”. 모두 환하게 웃는 얼굴에 립스틱의 색조가 번져났고 5월의 햇살이 자동차 유리에 부서지며 흩어져서 멋진 후광을 만들었다. 하나님 나라의 기쁨은 이런 것일까?

라오스 바라기

지난주 라오스의 문화 교류팀이 예수촌교회를 방문했다. A 선교사가 섬기는 라오코리아 대학의 학생들이 열흘간의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하여 예수촌교회를 들른 것이다. 먼저 춘천의 강원대학교와 한림대학교를 들러보고 춘천의명소를 찾았는데 틈틈이 한국어 수업을 들으며 라오코리아에서 배운 한국어 실력을 가다듬었다. 금요일에는 동해안을 찾아 바다를 보고 즐거운 시간은 보냈다. 라오스 학생들 모두 바다를 처음 보는 것이라 신기함과 즐거움을 금치 못했으리라. 주일에는 예수촌 교회의 예배에 참석하고 오후에는 춘천시 문화 행사에 참석했다. 다음 월 화요일에는 서울에서 난타 공연도 보고 서울의 몇몇 명소를 찾아 보는 것으로 문화 교류 행사를 마쳤다. 학생들은 수요일 저녁 예수촌교회에서 라오스의 밤 행사를 통해서 라오스 소개를 하면서 예수촌 지체들과 친분을 쌓았다.

이 문화 행사는 예수촌 공동체의 라오스 바라기 활동의 일환으로 라오스



학생들과 교류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그 땅에 전해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선교님 뿐 아니라 예수촌의 모든 지체들이 함께 애쓰고 협력하고 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많은 결실이 있기를... KAF 여러 교회들의 기도를 부탁드린다.

(정리: 황수진, 남상욱)

공동체 소식



LA 이음교회

Peace be with you!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LA 이음교회에서 인사드립니다.
니다.

종려주일 평화행진

올해 종려주일(3/29)에도 어김없이 Pasadena 평화행진에 참여했습니다.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공에 반대하며 시작된 평화행진은 벌써 13번째를



맞이했구요. 올해는 특별히 2012년 Pasadena에서 경찰의 오인사격으로 사망한 Kendrec McDade를 추모하는 순서도 포함되었습니다.



"구름비-바람이 분다" 상영회

3/31 저녁에는 제주 강정마을 이야기를 다룬 “구름비-바람이 분다” 상영회가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 미국 전역을 방문중인 파코/실버 부부와 Christian Peacemaker Teams의 Tim Nafziger를 만나 이야기를 듣고 함께 강정의 평화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부활절 Family worship

부활절을 맞이해서는 교회에서 함께 계란을 장식했구요, 지영자매가 수고해줘서 아이들과 함께 참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부활을 축하하는 주은/로렌의 바이올린/피아노 합주도 있었구요. 예배 뒤엔 제이슨 셰프님께서 맛난 점심을 준비해주셨습니다.



세월호 1주년

4/18 토요일엔 한인타운에서 세월호 1주기 전세계 동시집회가 있었습



니다. 세월호를 잊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서 세월호를 인양하라고, 진상규명을 가로막는 정

부시행령 폐기하라고, 그리고 유가족을 모욕하는 배-보상 절차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Mother's day

이음교회는 마더스 데이마다 아빠들이 아이들을 보고 엄마들이 점심식사를 위해 외출하는 전통이 있는데요, 이번 마더스 데이는 아이들을 볼 아빠들 숫자가 너무 적어서 예배 끝나고 다같이 외식을 했습니다. 마침 UCLA 대학원 유학중에 교회를 방문하신 자매님도 계셔서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성령강림주일 연합예배

이음교회에게 무상으로 장소를 제공해주는 시에라 마드레 회중 교회(Siera Madre Community Church, SMCC)는 저희 외에도 인도네시아 메노나이트 교회, 필리핀 교회, 아프리카 교회 등에게도 장소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매년 성령강림주일 마다 함께 모여 연합으로 예배합니다. 올해는 특별히 교회 마당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여러 언어로 성경도 읽고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예배 뒤 각 교회에서 준비한 음식으로 점심을 함께 했는데요, 이음교회에서 준비한 잡채와 생선전 인기가 아주 좋았습니다.

(정리: 전계도 형제)

제주 하늘 관당(가족)교회

제주 하늘가족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제주 귀향 후 약 7년간 꾸준히 주일예배를 드렸던 김성우 형제 가정의 요청으로 지난 3월부터 각 가정에 모여 주일예배를 드렸습니다. 3개월 간 안식월을 가질 수 있도록 예배 인도에 전창훈 형제, 찬양 인도에 김효중 형제, 주일 말씀은 윤영일 형제가 준비했습니다. 한달 씩 돌아가며 세 가정을 오픈하여 예배로 모였습니다. 예배가 있는 날에는 오랜만에 집안 대청소를 하며, 교회 식구들의 방문과 식사,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각 가정을 방문함으로써 서로를 더욱 알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5월 마지막주 예배 후 3개월간 역할 분담을 하며 수고한 것을 칭찬, 격려하고 부족하고 아쉬웠던 것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무엇보다 주일마다 묵묵히 섬겨주신 김성우, 박미영 가정의 수고와 헌신을 알게 되어 감사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김성우 형제의 안식일을 끝내고 하늘가족교회는 6월부터는 오리과 닭이 돌아다니는 꿀꽃향기 가득한 명월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5월 넷째주 야외예배를 드렸습니다. 제주도에 갈 수 있는 작은섬 비양도를 다녀왔습니다. 땅콩아이스크림이 맛있는 우도와 최남단 마라도, 청보리로 가득한

가파도를 제치고 비양도를 3번씩이나 방문한 이유는 공동체에서 가까운 한림항과 가깝기 때문입니다.^^

배타고 10분만에 도착후 방문할 때마다 모이는 팔각정에서 예배하고 각 가정에서 준비한 정성 가득한 도시락을 나누었습니다. 그 무엇보다 우리의 입맛을 자극한건 야외에서 끓여먹는 라면이지요. 식사후 섬을 한바퀴 돌아보며 자연을 누리고, 뜨거운 햇살을 맞으며 여름이 성큼 다가왔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부는 야외예배후 캠핑이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오름등반 및 체험활동을 하는 홈스쿨러들과 고등학교 학생이 된 성원, 선혁이까지 합세하여 캠핑장에서 1박2일. 야외취침, 식사복불복은 없었



지만, 집 나와 텐트에서 먹고, 자는 불편도 감수했습니다. 새벽 1시에 화장실가고 싶다고 집에서 자는 엄마에게 전화했다는 뒷이야기와 재용이(8세)와 산이(6세)는 아직 어려 참석하지 못하는 중, 고딩들만의 추억이 있는 캠프였습니다.

(정리:김성진 자매)

주님은 나의 목자 교회

갈멜의 집과 연합예배

5월24일 성령강림절을 맞아 부여의 갈멜의 집(전영표형제) 식구와 함께 연합예배를 드리며 세례식과 성만찬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갈멜의 집 두 따님들이 함께 세례를 받았습니다. 가족 외에는 회중이 없는 상황에서 서로 지체의를 가지고 연합했고 온전한 일치를 향한 작은 첫걸음이 되길 기도했습니다.

(정리:정성한 형제)

진해췌빌리교회

저희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현재 예배 장소로 사용하는 공간의 계약 기간이 8월로 만료가 됩니다. 계속 그 공간을 유지하기가 재정적으로 여유치 않아 임대계약을 해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모임 장소와 형태에 대해서는 좀 더 이야기를 나눠야 할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정성환, 엄정희 자매 가정과 6월에 결혼한 강종숙 자매 가정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함께 하지 못함이 많이 아쉽습니다만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하기를 위하여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희 교회는 8월 이후 많은 변화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위하여 기도 부탁드립니다.

(정리:한준호형제)

논산 평화누리메노나이트교회

안사 자매 어머니 에블린 방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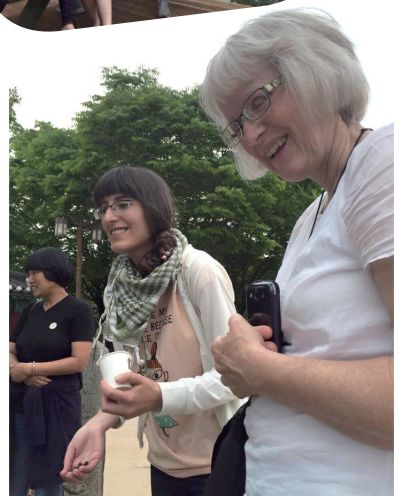
1년 간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안사 자매의 어머니님이 한국을 방문하셨습니다. 캐나다에서도 해외 구제 사업과 관련된 일을 하시는 에너지가 넘치는 분이셨습니다. 때마침 방문한 장진호형제 가족과 식사도 하고 대둔산 등반도 하였습니다.

저희 가족과는 여수와 남원 보성 일대를 여행했습니다. 아름다운 남해를 앞에 두고 늦은 시간까지 이야기하고 교제했습니다. 안사 자매는 엄마를 만나서인지 얼굴이 활짝 피었습니다. 평화도서관을 위한 씨앗 헌금도 해주셨습니다. 캐나다에서도 건강하게 사역하시길 축복합니다.



모내기

올 해 모내기를 했습니다. 올 해는 뒷 마당에서 모를 길렀습니다. 가족들과 대전에서 광면근목





사님이 오셔서 모내기를 도와주셨습니다. 일부는 손으로 모를 심었습니다. 작은 논이지만 새참도 먹고 중간중간 허리도 펴가며 여럿이 도와주시니 후딱 일이 끝났습니다. 내년에는 전체 손모를 심자고 합니다. 혹 내년에 체험하고 싶은 분들은 미리 예약하세요. ^^

평화도서관 진행 순조롭게...

6월에 바짝 매달렸더니 도서관 진도가 많이 나갔습니다. 지난해 겨울에 시작해서 생긴 결로와 방수 문제를 해결하고서야 실내 인테리어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입구와 1층 뒤편의 지붕을 씌우고 벽면 석고작업, 전주의 샘플교회에서 기증해 주신 장의자 20여개를 분해하는 작업, 타일을 깔기 위해서 울퉁불퉁한 콘크리트 바닥을 핸드 그라인더로 가는 작업, 장의자 분해한 나무로 계단과 의자와 책상을 짜는 작업 등등.



이제 남은 일은 석고판과 철 용접 부위에 퍼터 작업과 샌딩, 페인트 칠, 타일깔기와 전기작업, 책장, 카페 주방 만드는 일이군요. 타일 까는 것은 좋은 업자를 만나서 맡기면 될 것 같고 전기도 동네 분의 도움을 받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벽화를 그리는 것은 또 대전의 아름다운 천정연 자매가 자원해 주셨습니다.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고 몇 주 안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바짝 해보려고 합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장진호 형제 가족 방문

이음교회의 멤버였다가 교회를 개척 준비 중인 장진호 형제 가족이 몇 번 양촌을 방문하셔서 교제하고 예배하였습니다. 광혜숙자매님과 미국에서의 개척 전에 한국을 방문하셨습니다. 형제님이 준비 중인 계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오랜만의 고향방문에 큰 심을 얻고 가시길 축복합니다.



김준 형제 가족 방문

캐나다 쉘부룩메노나이트한인교회의 멤버였던 김준 형제 가족이 양촌을 방문해서 행복한 교제를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정현희 자매님과 채은이 초은이가은이 소은이 이렇게 참 행복한 가족의 살아 온 이야기를 나누는 일만큼 좋은 것이 있을까요? 반딧불이가 손에서 빛을 내는 것을 보는 아이들과

바베큐도하고 노래도 하며 좋은 추억 만들었습니다. 특히 책을 좋아하는 4 자매가 예배당에서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일요일 예배도 같이 드리고 좋은 나눔을 가졌습니다. 형제님 가족은 지금 김포에서 살고 계시며 목수일도 배우시며 새로운 여정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시작

사도행전을 마치고 에베소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의 의미가 뭔지, 신자의 반응이 어떠해야 하는지, 무엇을 잊지 말아야 하는지 잘 정리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정리:배용하 형제)



K A C

김경중 총무 세계 병역거부자의 날 행사 참석 및 주제 발표

2015년 5월 15일은 세계 병역 거부자의 날이었습니다. 한국 앰네스트가 유엔 인권대표부 보고서를 인용해 올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로 인한 수감자 669명은 전 세계 수감자 723명의 92.5%라고 합니다. 이는 실로 엄청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국 기독교는 단기간에 양적 성장을 이루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며, 원수를 사랑하라"는 사랑의 최고 계명 앞에서는 순종하는 것을 아예 포기한 상태로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 때가 많습니다.

생명을 살리고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고 화해와 평화를 추구하라는 그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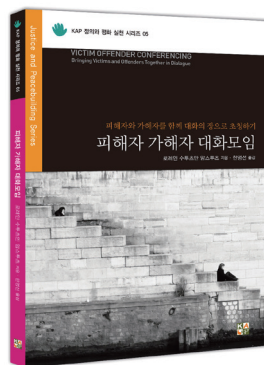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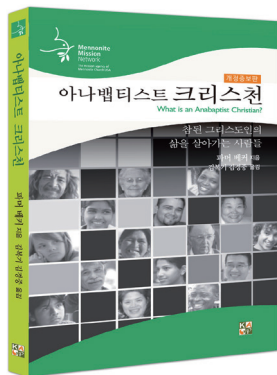


스도의 가르침은 우주적인 복음 메시지입니다. 예수께서는 "살인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 행악자에게 저항하지 마라.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복수하지 마라. 복수는 하나님께 맡겨라. 원수가 주리거든 먹이라. 선으로 악을 이겨라..." 등 하나님 나라의 절대 가치들을 가르쳐주셨습니다. 교회는 이 모든 것을 지켜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으며 이에 반하는 어떠한 행동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지난 5월 15일 제주대학교에서 세계 병역 거부자의 날을 맞이하여 실시한 포럼입니다. 김경중 총무께서 참여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아나뱃티스트 크리스천』 개정증보판 및 『피해자 가해자 대화모임』 출간

아나뱃티스트들이 이해하고 있는 성경의 핵심을 세 가지로 요약한 아나뱃티스트 크리스천 증보판이 출간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증보판은 실제적인 삶으로 적용하도록 총 11장의 '리더용 지침서'가 추가 되었습니다. 아울러 회복적 정의의 구체적 실천 사항인 피해자와 가해자를 만나도록 준비한 『피



해자 가해자 대화모임』이 출간되었습니다. 이 책이 출간됨으로써 오랫동안 빠져 있었던 정의와 평화 실천시리즈가 제 모양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회복적 정의나 서클 프로세스를 실천하기 원하시는 분들에게 강력히 추천할 책입니다.

킹덤빌더스 다시 시작

작년 말 사무실 이전으로 잠시 쉬었던 킹덤빌더스를 다시 시작하였습니다. 킹덤빌더스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도록 초청하는 운동으로 아나뱃티스트 관련 서적을 함께 읽고 토론하며, 국내외 리더들을 초청하여 강의를 듣거나 세미나를 운영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모임은 예전의 방식대로 목요일 12시에 모여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눈 후, 1시부터 3시까지 토론 방식의 나눔을 갖습니다. 장소는 KAC 사무실이며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을 정중히 초청합니다. 가을부터는 서울에서 아나뱃티스트 세미나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정리:KAC 팀)





덕소 이야기

한국평화교육훈련원(KOPI)

KOPI는 다양한 요청에 의해 회복적 정의/회복적 생활교육 강의와 워크숍이 많이 진행되었습니다. 학교와 교육청 등 여전히 교육관련 기관들의 요청이 많으나 최근에는 목회자 모임이나 개별교회들에서도 요청이 조금씩 확대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있었던 구리의 한 교회의 요청으로 워크숍 시리즈가 열리게 되었고, 대구의 한 교회에서도 청년그룹에게 회복적 정의를 소개하는 강의요청이 있었습니다.

또한 KOPI와 협력하고 있는 회복적 정의 시민사회 네트워크 파트너 단체들과 함께 안산 단원지역의 세월호 피해에 영향을 받는 지역주민과 지역사회 활동가를 위한 회복적 정의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피해지역에서 새로운 정의 관점을 소개하고 공동체 안에서의 대화를 위한 진행자

양성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북아평화교육훈련원(NARPI)

2015년 NARPI 여름 훈련이 8월 8일부터 21일까지 몽고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현재 참가자를 위한 모집이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일본, 중국, 몽고 참가자는 다른 해보다 더 많이 모집이 되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유독 참가지원자가 부족하여 좀 더 많은 홍보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한국 참가자를 위한 장학금도 준비되어 있어 관심 있는 분들은 NARPI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하시면 됩니다. www.narpi.net



동북아평화교육훈련원(NARPI)에서는 2015년 여름 국제 평화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몽고의 수도 울란바토르에서 진행합니다. 2주간의 다양한 과목들을 통해 평화교육자로서의 지식과 소양을 넓힐 수 있으며, 3일간의 필드트립을 통해 몽고의 역사, 문화, 사회 이슈에 대해 배우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관심 있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참가대상	동북아 6개국 성인 누구나	장소	FOR PEACE (울란바토르에서 30분 떨어진 국립공원 내 위치)
참가비용	2주: \$1,100 1주: \$600 *항공료 별도	언어	영어(통역필요시 선별적지원)
도 학 8월 7~8일	여는 수업 : 평화교육을 위한 영어수업		
첫 주 8월 9~13일	Course 1 Conflict & Peace Framework	Course 2 Theory and Practice of Peace Education	Course 3 Peacebuilding and Sustainable Development
필드트립 8월 14~18일	몽골 국립역사박물관, 자이산 기념타워, 칭기스칸 대형동상공원, 몽골 NGO기관 등 몽골의 역사, 문화, 사회를 배울 수 있는 다양한 장소 방문		
둘 주 8월 19~21일	Course 4 Applied Theatre in Peacebuilding	Course 5 Restorative Justice: A New Lens for Justice	Course 6 Conflict Transformation in Organizations
www.narpi.net		자세히 보기	



KAF 소식

2015년 전반기 정기모임, 제주하늘가족교회에서

2015년 전반기 KAF 모임을 제주하늘가족교회에서 6.19~21 했습니다.

회원인 꿈이있는교회, 예수마음교회, 예수촌교회, 은혜와평화교회, 주빌리교회, 평화누림교회, 문선주자매에서 참석했고, 최태선목사, 진일교목사, 아나사라 자매가 참관했으며 마지막 날 김기현목사가 합류했습니다.

첫날은 늦은 시간까지 각자의 삶과 공동체 소식을 나누었고, 3곳의 형제 자매의 집에서 잠을 잤습니다. 둘째날 아침에 김성우 형제 집에서 정기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는 전남식 대표의 설교로 시작했습니다.

이날 나누어 안건은 MWC 한국 부스에 대한 각 회원들의 참여 방법과 내용을 나웠으며 한국아나뱃티스트 교회의 교단설립에 대한 안건을 주로 논의했습니다.

먼저 총무인 배용하형제가 교단 설립에 대한 그간의 경과를 보고했으며 지난 모임때 정한 TF팀의 논의내용을 확인하고 그 필요성을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다만, 명칭에 대한 논의에서 몇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간에는 한국메노나이트 교회로 교단을 만드는 것을 전제로 준비하였는데, 안동규형제가 한국아나뱃티스트 교회연합으로 이름을 부르면 교단에 대한 거부감이 덜하지 않을까라는 안전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여러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이때 나온 안전이 각 공동체별로 충분히 논의된 다음에 11월 정기모임에서 좋은 결정이 나오길 기대합니다. 또한, 하반기 정기모임 전에 KAF의 대표 전남식 형제와 총무 배용하 형제가 각 공동체를 방문하여 이부분에 대해서 심층으로 의견을 수렴해보기로 했습니다.

또다른 안전으로는 내년부터는 KAF의 회원을 교회가 아닌 개인으로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부족한 회비 문제도 해결하고 개인들 간의 활발한 교제와 연합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기타 안전으로는 부산의 김기현목사가 준비하는 "아나뱃티스트 신학 컨퍼런스"에 대한 지원 내용이었습니다. KAF가 주관하는 것은 아니지만, 도울 방법을 찾아서 돕자는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한 번의 회의 외에는 전부 관광과 교제로 그동안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를 서로 나누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기꺼이 초대해주시고 가정을 열어주셨으며 멋진 식당에서 음식을 마련해 주신 하늘가족교회 형제자매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정리: 편집부〉

세계 아나뱃티스트 섬김 네트워크,

Global Anabaptist Service Network 이하 GASN)

항상 그렇듯이 메노나이트 총회는 축제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먹고, 마시고, 교류하는 잔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무슨 세속적인 단체를 소개하는 느낌을 가질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실제로 메노나이트 총회를 참석해 보면,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안다. 메노나이트 총회가 모든 사람들이 누리는 큰 잔치라면, 그 이전에 준비 위원회와 리더십들의 모임은 또 다른 여러 작은 잔치라 할 수 있다. 준비위원회가 모이고, 리더십 그룹이 모여 함께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메노나이트로서 형제애를 나눈다.

매 6년 마다 열리는 이번 제 16차 메노나이트 세계 총회 일정은 2015년 7월 21~26일이다. 미국 펜실바니아에서 개최되는 이 행사에는 지구촌 여러 나라에 있는 메노나이트들이 참여한다. 비록 메노나이트 교회는 아니라 할지라도, 16세기 이후, 아나뱃티스트 뿌리를 갖고 있는 사촌들이 초대되고 함께 한다. 사촌들이라 함은 후터라이트, 아미쉬들을 말한다. 뿐만 아니라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지는 않지만, 관심 있는 교회 교단 리더들이 참관하기도 한다. 전 세계 60여 개국의 메노나이트 형제, 자매들이 모이는 이번 총회는 서로 배우고, 하나임을 확인하는 큰 잔치가 될 것이다.

메노나이트 세계 총회가 열리는 장소에서 며칠 미리 열리는 모임이 여럿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세계 아나뱃티스트 섬김 네트워크 모임이다. 이 모임은 총회 모임에 앞선 16~20일 동안 열리며, 현재 아나뱃티스트 교회가 존재하는 나라의 메노나이트 기관 대표들이 참여하여 서로를 알아가는 교제 모임이다. 한국 아나뱃티스트 센터는 GASN의 회원자격으로 이 모임에 참여하도록 초청을 받았다. 이 모임을 통해 전 세계의 메노나이트들이 어떻게 일



Anabaptist Churches: Mennonite, Brethren in Christ, Church of the Brethren and others
Iglesias anabautistas: Menonita, Hermanos en Cristo, Iglesia de los Hermanos y afines
Eglises anabaptistes : mennonite, Frères en Christ, Église des frères et autres

을 하며, 각 나라에서 역할을 감당하는지 함께 예배하며 교제하게 된다.

GASN에는 대략 30여 개국, 51개 단체가 속해 있는데, 함께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며, 서로에 대한 소식을 나눈다. <https://www.mwc-cmm.org/article/gasn-member-organizations>

대부분 이 네트워크에는 각 나라에서 활동하는 선교단체, MCC나 MDS와 같은 메노나이트 관련 기관이 회원으로 속해있다.

무엇보다 이 모임이 소중한 것은 전 세계에서 떨어져 살고 있는 아나뱃티스트로서 우리가 누구인지 되돌아보며, 과연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제대로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지 점검한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전해주시는 좋은 소식을 함께 나누기 위한 파트너로서 서로를 격려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것이다.

이번 전체 총회에는 한국 아나뱃티스트 센터의 김경중 형제가 동북아시아 MWC 연락책으로, 캐나다 선교사로 파송되어 KAC와 KAF를 돕는 김복기 형제가 GASN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박정경수 형제가 초청받아 참여한다. 아울러 이번 회의 기간 동안에는 가능한 한국 형제, 자매들이 함께 모여 교제를 가질 예정이며, 동시에 KAF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들이 보내온 한국 소개 부스도 함께 운영할 예정이다. 11호에서는 MWC 참가 특집 기사를 통해 독자들을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을 기대하며

안녕하세요. 저는 2015년 IVEP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어 현재 춘천의 한국 아나뱃티스트 센터에서 인턴십 중인 배민정이라고 합니다. IVEP(International Volunteer Exchange Program)란 메노나이트 중앙 위원회(MCC)의 국제 문화체험 프로그램으로써 다양한 국가의 젊은이들이 북미의 젊은이들, 특히 메노나이트 청년들과 국제적 친교를 증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문화 교환 프로그램입니다.

배민정 자매
(KAC IVEP)

작년 1년간 한국평화교육훈련원(KOPI)에서 청소년을 위한 갈등, 조정, 회복적 정의 교육을 하면서 일을 하다가, 이 프로그램을 추천받아 지원하게 되었고, 올 8월에 미국 캘리포니아주 프레즈노 도시의 대학교 안에 위치한 피해자-가해자 조정프로그램 (Victim-Offender Reconciliation Program)에서 1년간 봉사하게 됩니다.

저는 메노나이트가 무엇인지, 과연 아나뱃티스트는 어떤 관점으로 세상의 평화를 만들어나가는지에 그들의 삶과 방향성이 궁금했고, 다른 나라의 사람들과 문화 교류를 하고 싶은 마음에 프로그램에 지원하였습니다.

2년 전 저는 은혜와 평화교회라는 메노나이트 교회를 다니게 되면서, 기독교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간다는 건 '자기 구원'이 아닌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사회적 책임과 더불어 평화를 삶 속에 실현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준대형교회의 청년부를 섬기면서 기복신앙과 점점 마케팅 중심이 되어가는 교회를 바라보면서 지치고, 두려웠습니다. 서로 얼굴도 잘 모르면서 교회간판을 내걸고 그들의 신앙을 평가하는 것이 진짜 제 자도의 삶인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심지어 제가 가지고 있던 신앙에 대해서도 회의를 느꼈습니다.

은혜와 평화 교회에서 제일 인상이 깊었던 건 다름 아닌 그들의 식사기도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있음에 감사를 드리면서, 한편 지금도 먹지 못하는 사람들을 기억해 달라는 기도. 그 기도를 통해 저는 서로를 사랑하는 것은 기억하고, 함께 하며, 서로의 연결고리를 찾아가는 과정의 외침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덕소에 있는 공동체에서 생활하면서 청소년들을 위한 회복적 정의의 교육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시간은 저에게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다양한 연령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아이들을 만나면서 도전받고 이 사회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일관화 된 교육제도 속에서 진정한 꿈을 꾸지 못하는 아이들, 빈부격차에 따라 친구들을 사귀고, 3-4개의 학원가방을 가지고 다니는 아이들을 보면서 구조적인 폭력 속에 노출되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구조적인 폭력 속에서 사회적 약자인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 크리스천으로써 어떻게 평화를 실천하며, 좀 더 평화로운 과정 속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고치고 회복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서클활동과 수업을 통해 회복적 정의를 알리고 아이들의 아픔과 외로움을 조금이나마 달래줄 수 있어서 보람을 느끼며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한 번은 군부대 근처에 위치한 학교를 간 적이 있었는데, 방황하고 외로워하고 가정이나 학교에서 방치된 아이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군인들로 형

성된 마을 전체에 흐르는 폭력과 상명하복 위계질서를 보며, 그리고 이러한 환경에 의한 트라우마들이 자연스레 아이들에게 전가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 우리는 군대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살아 있는 생명에게 총구를 들이대는 것이 합리화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생겼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하기 전에 저는 양심적병역거부에 대해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신념을 나타내고자 병역거부를 한다면 그 빈자리를 또 다른 누군가를 채우고 총을 쥐어주게 된다면, 그게 과연 평화주의 실천에 의한 올바른 결과일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 경험을 통해 이러한 고민을 하고 질문을 해나간다는 것 자체가 제게 신선하고 새로운 경험으로 다가왔습니다.

“마침내 폭력에 대한 어려운 논쟁이 예수의 모범이라는 내용과 함께 제자도의 원리에 따라 정리되었다. 중생한 제자들은 예수를 따르게 될 것이다..... 그들은 세속적인 물질을 요구할 권리를 포기하고, 그들을 악을 앞으로 감지 아니하고, 선으로 악을 갚게 될 것이다.”

『재세례신앙의 씨앗으로부터』라는 책의 한 구절입니다. 폭력에 대한 어려운 논쟁 속에서 우리는 꾸준히 제자도의 길을 걸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민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함께 일하는 분들과 동행하면서 성장하고 싶습니다.

저는 IVEP 프로그램을 위한 인턴십을 위해 지금 춘천에 위치한 한국아나뱃티스트센터에서 일하면서 메노나이트 관련 책들을 읽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 전쟁 당시 메노나이트 중앙위원회(Mennonite Central Committee)가 한국에 들어와 사역했던 활동들에 대한 사진전시를 준비하면서 조금씩 아나뱃티스트 사역이 무엇인지에 대해 배워가고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어렵습니다. 배운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는 이야

기입니다. 공동체를 지향하면서도 공동체 이기주의가 싫고, 공동체 유익만을 바라는 제 자신을 볼 때 한심하기도 하면서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인턴십 기간이 때로는 좋은 에너지를 공급받아서 기쁠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제 세부업무가 정확하지 않아 일하기가 애매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때와 상황과 환경이 저에게 주어진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찾기 위한 노력의 한 부분이기에 시간의 흐름과 더불어 저도 성장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턴십을 참여하면서 두 가지를 결심하였습니다. 1년 뒤 미국을 다녀오면 무슨 일이 있어도 대형교회에는 돌아가지 않으리라는 것이 첫 번째 결심입니다. 이것은 제 나름대로의 중대한 결심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여기서 인턴십과 IVEP를 참여하면서 받은 섬김과 헌신, 사랑을 십분의 일이라도 다른 이에게 전하리라는 마음가짐입니다. 지금 한국아나뱃티스트센터에 계신 분들과 메노나이트 중앙위원회에 있는 몇몇 친구들은 저에게 정말 많은 것을 느끼게 해주고, 어떤 훈계나 지식이 아닌 그들의 삶으로 저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부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회복적 정의 강의에서 인상 깊게 들었던 내용을 소개하며 글을 마치고자 합니다.

공동체 과거를 위한 공동의 애도, 우리가 함께 한 역사들을 모두가 함께 보는 것, 회복적 정의의 실천, 사랑과 정의의 관계적 성질을 함께 설정하는 일, 이런 운동이 우리를 용서로 이끌어 갈 수 있다. 이것은 과정에서 가장 희망적인 역동인 용서받기와 용서하기가 될 것이다.

관계적이고 사회적인 회복적정의를 타인과 분리불가분하게 연결되고 묶여 있는 나 자신의 선함을 통해 다른 사람의 최고의 선함을 찾는 어려운 사랑의 실천이다. 공동체 과거를 위한 공동의 애도, 우리가 함께 한 역사들을

모두가 함께 보는 것, 회복적 정의의 실천, 사랑과 정의의 관계적 성질을 함께 설정하는 일, 이런 운동이 우리를 용서로 이끌어 갈 수 있다. 이것은 과정에서 가장 희망적인 역동인 용서받기와 용서하기가 될 것이다.

그것은 현실적인 길이다. 왜냐하면 용서는 망가진 인간관계를 회복하는 오랜시간이 걸리고 많은 차원에서 좀처럼 완성되지 않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함께 하기 위해 그리고 함께 제자도의 길을 가기 위해 필요한 용서받기와 용서하기를 우리 스스로가 잘 해낼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는 치열하고 고군분투해야만 하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거라는 궁극적인 믿음 안에서 서로를 의지하며 삶으로 그것을 녹여낼 때, 비로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십자가: 우리는 무엇을 부끄러워 해야 하는가

십자가는 우리가 부활절과 그 너머의 여정을 걸어감에 있어 뚜렷한 상징으로 자리합니다. 십자가는 종종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또한, 십자가는 기독교문화적인 의미와 패션의 한 도구로 사용되어 본래 예수님을 죽인 육체의 사형 틀과는 사뭇 동떨어져 있기도 합니다.

저에게 십자가는 여러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다가오는 십자가의 의미는 고통입니다. 십자가는 고문과 죽음의 도구였습니다. 그것은 치명적인 제국 권력의 상징으로 심각한 부정의(injustice)를 대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는 희생과 죄를 용서를 상징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킨 것이 바로 십자가 위의 예수의 죽음 때문이라는 사실을 드러내 줍니다. 예수의 길은 십자가에까지 맞닿아 있고, 더 나아가 우리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게 십자가는 제자도를 상징합니다.

2015년 사순절은 이제까지 제가 탐구해 보지 못한 십자가의 중요성으로 나를 이끌어 주었습니다. 그것은 부끄러움(수치, 멸시)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여러 번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른 방법이 아닌 십자가라는 수치스러운 방법으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수치가 우리와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그리고 또 스스로의 십자가를 견뎌야 하는 사람으로 우리도 그만한



표대문 형제
캐나다 메노나이트교회 선교부,
책임목사

수치를 당하고 있을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부끄러움과 영광스러움은 어떤 곳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문화인류학자는 사회적 풍토를 “도덕적 감정” 혹은 사회적 통제를 두려움, 죄책감과 부끄러움이라는 세 가지 기본적인 형태로 설명합니다. 두려움이라는 문화적 현상은 오히려 두려움을 회피하려는 데 기인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두려움은 힘을 가진 자에 의해 표출됩니다. 죄책감에 민감한 문화에서, 죄책감은 법과 규칙을 어긴 “잘못”에 대한 정의와 용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수치” 문화는 자기가 속해 있는 그룹에서 “부끄러움(창피 또는 멸시)”을 당하지 않고 명예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이 속해있는 공동체의 기대감을 충족시키려는 사회적 복잡성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회는 각자의 “도덕적 감정(기준)”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넓은 의미에서 캐나다 사회는 종종 “죄책감”의 문화로 묘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법체계는 법과 유죄, 즉 옳음과 그름의 판단에 근거합니다. 이러한 풍토는 이미 우리사회 전반의 논쟁 영역 (기후변화로부터 믿음, 과학, 성, 자녀양육의 실제에 이르기까지)에 깊이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옳고 그름에 대한 특정한 이해와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유형의 폭력, 제재, 논쟁을 통해 우리의 이해들을 증진하거나 강화함으로써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고기준제한을 넘거나 제재를 가하거나 다양한 방법의 폭력적인 위해를 경험할 때, 우리는 힘들어 합니다. 저는 우리가 잘잘못을 가리는 그 와중에 서로를 부끄럽게 하고, 멸시를 받거나 모멸감을 주는 또 다른 역동을 규칙적으로 경험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사회가 점점 이러한 풍토로 변해가고 있다는 사실은 방송에서도 쉽게 발견됩니다. 권위의 침식에 기반을 두긴 했어도 우리의 다름과 그에 따른 논란은 점점 더 과열되어 가는 반면 확신은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의 공동체와 가족 관계에서는 점점 더 “동질감을 느끼는 사람들”끼

리의 여러 집합체로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관점을 정당화하기 위해 너무 쉽게 다른 사람이나 그룹들을 멸시하고 그러한 과정에서 불신과 상처를 더함으로써 증인으로서의 삶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무엇이 부끄러운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 역사 속에 자리해왔던 공동의 정서와는 달리 우리의 개인주의는 도대체 부끄러움이란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가능성들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더 복잡다단해져 가는 사회적 상황은 “부끄러움”에 대한 정의를 상황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 갑니다. 이 말은 현재 우리가 “부끄러워하는” 상황이나 사실이 내일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는 무엇을 부끄러워해야 할까요? 이에 대한 첫 번째 제안으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우선적인 입장에서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 먼저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부끄러워해야 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주기도문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구절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로 끝납니다. 이것은 예수님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위와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로다”(마3:17)라는 말씀이 이를 증거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창조물을 책망하거나 축복하는데 있어 매우 독특한 입장을 보여주십니다. 산상수훈의 팔복에서 우리는 그것을 분명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의 제안은,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특히 어떤 면에서 동등한 대접과 정당한 대접을 받지 못하는 초라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들, 사마리아인, 세리들, 문둥병자들, 그리고 사회에서 따돌림을 받을 만한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어떤 면에서 예수님은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이루다 표현할 수 없을 만한 멸시를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분이 상대하신 이 모든 부류의

사람들을 결코 멸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세 번째 제안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근래의 사회에서는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열정적이었던 “전도”의 성향을 많이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방법론에 대해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회복하시는 사역에 대한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나누어야 합니다.

끝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에 대한 끊임없는 약속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부끄러움 없는)한” 삶을 살고 그분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동기가 됩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날이 머지않았다는 우리의 간절함과 경각심을 예배와 증인된 삶으로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젊은 지도자인 디모데에게 준 디모데후서 1:12절의 말씀은 우리를 다시 한 번 깊은 묵상으로 초대하며, 우리를 격려합니다. “나는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믿어 온 분을 잘 알고 있고, 또 내가 맡은 것을 그분이 그 날까지 지켜 주실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아멘.

- 옮긴이: 박경희

-원문은 <http://www.commonword.ca/FileDownload/20512/Equip-155-Tim.pdf>

재세례신앙의 회복과 교회 공동체

1. 들어가면서

신약성경에는 1세기의 초대교인들이 성경의 신앙 원리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유대교와 로마제국의 혹독한 핍박에 쓰러져갔던 기록이 넘쳐난다. 이와 같은 신앙 유산은 로마교회와 개혁신교회의 불같은 압제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신앙과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순교도 마다하지 않았던 16세기의 재세례신자들에게 고스란히 이어졌다. 역사상 초대교회보다 더 공동체적이었거나, 제자도에 투철했거나, 평화를 추구했던 신앙 공동체는 없었다. 그러나 16세기 종교개혁이 미완의 혁명으로 치닫고 있을 때, 재세례신자들은 초대교회가 이루어냈던 공동체·제자도·평화를 다시 발견하고 이를 회복시켰다. 재세례신앙이 소중한 이유는 우리가 추구해야 할 대상이기 때문이 아니라, 순교를 불사하며 성경의 신앙과 원리를 지켜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21세기를 살면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자 하는 우리들이 이러한 선배들의 믿음에 의해 용기와 도전 그리고 격려를 받기 때문이다.

재세례신앙의 특징인 공동체·제자도·평화가 구현되고 성숙되어야 할 곳은 교회이며, 또한 이러한 가치를 세상으로 확장시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할 유일한 대리자 역시 교회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구원한 백성들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시고, 이 몸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시기 때문이



차성도 형제
예수촌교회

다. 따라서 교회는 재세례신앙을 잉태하는 모판이자 이를 보호해야 할 온실이며, 재세례신앙을 가르쳐야 할 학교인 동시에 실천의 장이다.

그런 면에서 교회가 재세례신앙의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하려면 성경의 정의대로의 원리와 구조를 가져야 한다. 성경적 정의에 따르면 교회는 여러 지체들로 하나가 된 그리스도의 몸이자, 공동체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몸이 된 이 공동체는 교회의 정체성이자 곧 존재방식이므로 교회의 모든 영역에서 공동체성이 드러나야 한다. 이를 재세례신앙이 추구하는 교회에 적용하여 말한다면, 모든 영역에서 얼마만큼 공동체를 이루는가에 의해 재세례신앙을 추구하는 교회의 온전성이 판가름 난다는 뜻이다. 따라서 재세례신앙의 성패는 교회의 공동체성에 의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알리지 아니하셨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비밀을 성령으로 나타내셨다. 그 첫째 비밀은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엡 3:6)는 말씀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둘째 비밀은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엡 3:10)라는 말씀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회로 말미암아 모든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신 것이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확장되어지며, 이 복음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게 맡겨졌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비밀이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핵심은 복음과 교회이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세상으로 거침없이 흘려보내시려고 그리스도와 그의 구속사역을 통해 교회를 이루셨다. 이는 성경의 정의대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 즉 공동체라는 의미이며, 그렇게 교회를 이루는 것이 곧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말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교회론은 재세례신앙을 실천한 전제이기도 하다.

2.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교회가 되려면

하나님 나라는 교회가 복음을 세상에 증거하면서 확장된다. 이는 이 세상 속에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알려주는 동시에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핵심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교회가 되려면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

1) 인간이 구축한 성전을 헐어야한다

하나님의 계명은 오랜 시간동안 이어지면서 전통이란 이름으로 굳어져 갔다. 말씀을 잘 지키며 산다는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전통에 빠져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렸다. 이를 두고 예수께서는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막 7:9)고 질책하셨다. 한편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요 2:19)라고 외치셨다. 이는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구축한 제도화된 교회를 헐고, 주님께서 직접 자신의 교회를 일으키시겠다는 의미다.

실제로 주님께서 세운 교회는 유대교와 로마제국의 엄청난 박해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생명력으로 자라났다. 생명력이 충만한 교회를 통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까지 거침없이 흘러나갔다. 그러나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기독교 공인이 이루어진 AD 313년을 기점으로 신앙 때문에 순교를 각오해야 했던 상황이 도리어 교회에 속하지 않은 사람에게 불이익이 주어지는 상황으로 역전되었다. 공동체인 교회는 인위적인 제도화에 의해 점차 조직체로 바뀌면서 복음의 생명력마저 사라지게 되었다. 이처럼 복음의 빛이 사라진 암흑 속에서 종교개혁의 열망이 솟아나기 시작했지만, 종교 개혁자들은 종교 개혁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정치적 도움에 기대는 잘못을 범하였다. 가톨릭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개혁을 주창한 당사자들은 정치 권력자들이 선호하는 중앙집권식 국가교회(State Church)에 기대는 모습으로 돌아가고 말았

다.

이런 까닭에 루터의 종교개혁에 의해 ‘이신칭의’는 회복되었지만, ‘전신 자체사장’은 실천과 동떨어진 구호로 남겨지고, 결국 ‘신약교회’로의 개혁은 포기되었다. 그러나 정치권력과 타협하지 않았던 재세례신자들은 신약교회의 원리를 담은 신자들의 교회(Believers’ Church 또는 자유교회Free Church)를 회복하기 위해 생명의 위협도 불사하였다. 이로 인해 이들은 로마 교회뿐 아니라, 개혁교회의 칼에 의해서 순교의 피를 흘릴 수밖에 없었다.

수많은 재세례신자들의 순교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의 꺼질 줄 모르는 욕심은 교회를 다시 제도화하기 시작하였다. 한편은 양적 성장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효율이라는 이름 아래 세상의 갖가지 방법과 구조를 교회 안으로 도입하였다. 이로 인해 교회는 다시금 사람들이 만든 구조 속에 갇히게 되었다. 이처럼 교회가 세상적 구조를 갖추게 되자 이에 걸맞은 지배원리가 작동하기 시작하였다. 예수님께서 급진적으로 유대교회를 허시고 신약교회를 세우셨듯이, 재세례신자들은 신약교회를 위해 순교를 마다치 않았다. 그리고 재세례신자들이 신약교회를 회복하기 위해 순교를 마다하지 않았듯이, 이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그동안 효율과 성장이라는 이름으로 교회 안에 구축한 세상의 방법과 구조를 털어버림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교회 공동체를 세워야 할 것이다.

2) 예수 그리스도의 터에 교회를 세워야한다;

튼튼한 건물을 세우려면 무엇보다 기초가 튼튼해야 한다. 아무리 난공불락의 요새를 짓더라도 기초가 약하면 그 성은 저절로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튼튼한 기초 위에 세워야하는데, 교회를 세울 유일한 터는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 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 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전 3:10-11)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터라는 것은 그분이 교회의 모든 사역과 구조의 근거가 되는 동시에 목표와 방향이 된다는 의미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예배 공동체인 교회가 예배드려야 할 대상일 뿐 아니라 제자 공동체인 교회가 따라야 할 모범이시기 때문이다.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어받는 것이 선교인데, 교회가 선교를 수행하려면 우선 교회 자체가 건강해야 한다. 교회가 건강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선 교회의 머리되신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움직여야 한다. 또한,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모든 지체가 참여하는 은사 공동체로 자라가야 하며, 율법의 완성자인 그분의 말씀으로서 성경을 이해하고 설명하고 가르치고 지켜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는 반드시 그분 위에 세워져야 하며 누구든지 교회를 세울 때, 각각 어떻게 세울까 조심해야만 한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고전 3:12-13)는 말씀처럼 자신이 보기에 좋다고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세우거나, 세우기 쉽다고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세우면 불로 태워 없어 질 것이기 때문이다. 바른 터 위에 세우지 않은 모든 건물은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어 있으며, 바른 터가 아닌 곳에 세운 건물은 높을수록 크게 넘어지며 무너짐이 심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교회 공동체만이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다.

3) 구약으로의 회귀를 저지해야 한다

구약에서 피의 제사는 매우 중요했지만, 이것의 필수요소인 희생제물, 제사장, 그리고 장막은 장차 오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일 뿐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히 9:11-12). 이 말은 그리스도가 곧 희생, 제사장직 그리고 장막의 완성이란 의미다. 이는 더 이상 어떤 희생제물도 필요 없다는 의미이며 따라서 희생제물을 집례할 제사장도, 희생제물을 드릴 성소도 더 이상 필요 없다는 의미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교회의 탄생으로 구약의 희생, 제사장직, 그리고 장막의 효력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사역에 기초하여,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임을 위한 건물을 지으려고 시도하지 않았다. 그들은 집에 모여 예배하고, 떡을 떼며, 서로를 돌보며, 교제하였다. 놀라운 것은 이 시기에 교회가 질적으로는 물론 양적으로도 가장 급속하게 성장하였다는 사실이다. 이는 교회의 참된 성장은 건물의 도움을 입거나 또는 방해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가 모여 예배드릴 예배당은 필요하지만 예배당(건물)이 교회(사람)에 우선할 수는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너희도 산 돌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벧전 2:5)는 말씀처럼 교회는 산 돌인 성도들로 세워지는 신령한 집이다. 성도가 곧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 즉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이라는 말이다.

이러한 성경의 가르침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종교개혁의 근본원리 중의 하나인 전신자제사장은 구호로만 존재해 왔을 뿐, 기독교 역사는 목회자를 평신도와는 구분하였고, 여전히 성직자로서의 역할과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이와 같은 비성경적인 성직자와 평신도의 구분은 교회 안에 세상권위체제를 구축하고 세상방법의 권위를 행사하는 교회를 양산해 왔다.

사실 16세기의 재세례신자들의 주요 이슈도 재세례가 아니라 성경적인 신앙과 교회였다. 성경적인 신앙이 필요로 한 것은 바른 신앙고백이었기에 재세례의 필요가 제기된 것이며, 모든 지체들이 은사대로 섬겨야하기에 모두가 사역자로 참여하는 교회의 필요가 제기된 것이다. 또한 부와 권력의 상징인 거대한 성전 대신에 긴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가정에서 모이고자 했

던 것이다. 이는 가톨릭뿐 아니라 국가교회의 틀을 그대로 고수하려는 종교 개혁자들에게 커다란 도전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이 시대의 교회가 성전, 제사, 제사장직을 회귀시키려는 노력은 늘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할 일이다. 웅장하게 건축된 성전이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대신하고, 멋지게 의식화된 제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자리를 대신하고, 직업적 제사장들이 은사를 중심으로 발현되는 영적 지도력을 대신하려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을 거스르는 행위이다. 이처럼 인간의 종교성을 만족시키려고 구약으로 회귀하려는 모습은 본질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인하는 행위이다.

3. 교회가 이루어야 할 공동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전 12:27)는 말씀처럼 모든 성도가 곧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이고 지체의 각 부분이다. 몸에 있는 모든 지체들이 각자의 기능을 담당해야만 몸의 생명이 유지되듯이, 교회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은사들이 발휘되어야만 존재할 수 있는 공동체이다. 이처럼 공동체가 교회의 본질이고 존재 양식이기에 공동체성은 당연히 교회의 모든 영역과 사역에서 나타나야 한다. 교회는 모든 영역과 사역에서 공동체성을 이루기 위해 집중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교회는 우선적으로 초대교회를 본받는 공동체, 가족 공동체, 예배 공동체, 말씀 공동체, 은사 공동체, 복음 공동체, 교육 공동체, 재생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1) 초대교회를 본받는 공동체

‘개독교’라고 더 많이 불릴 만큼 기독교에 대한 비판이 난무하는 현 상황 일수록 우리는 초대교회를 본받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온 백성에게 칭찬 받았던 초대교회가 보여주었던 나눔 공동체, 모이는 공동체, 가족 공동체가 말로 지금 일어난 기독교의 제반 문제에 대한 올바른 해결책이 될 것이다. 교회들이 서로 나누고, 모이기를 힘쓰고, 온전한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면

모든 사람으로부터 칭찬받는 교회가 될 뿐 아니라 구원받는 자들을 날마다 더하실 것이다.

나눔 공동체: 온 백성에게 칭찬 받는 교회가 되려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는”(행 2:44-45) ‘나눔 공동체’가 되어야한다. 초대교회는 자신의 물건을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았을 뿐더러 자발적으로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 교회가 그토록 신랄한 비난을 받는 주요 원인은 바로 나누지 않기 때문이다. 교회는 성도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살펴서 자발적으로 나누어야하며, 이웃의 필요가 무엇인지 찾아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야하고, 교회는 이웃 교회의 필요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적극적으로 도와야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히 13:16)는 말씀처럼 서로 나누는 행위를 통해 이루어진다.

모이는 공동체: 온 백성에게 칭찬 받는 교회가 되려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행 2:46a)던 것처럼 ‘모이는 공동체’가 되어야한다. 초대교회는 마음을 같이하여 날마다 모이기에 힘썼다. 바빠 돌아치는 현대 사회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는 무엇을 우선하는가에 달려있다. 우리가 회사 일, 집안 일, 취업 준비, 입시 준비, TV, 취미 등을 더 중요시 하다면 그것을 택할 것이고, 교회 공동체를 중요하게 여긴다면 교회 모임을 택할 것이다. 교회의 모임들이 점점 더 약해지는 이면에는 말씀을 희석시키고, 예배를 인스턴트화하며, 주일학교를 축소하고, 권징을 화석화한 교회의 책임도 무시할 수 없다. 사회가 점점 더 바빠질수록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써야 한다.”(히 10:24-25)

가족 공동체: 온 백성에게 칭찬받는 교회가 되려면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는”(행 2:46b-47a) ‘가족 공동체’가 되어야한다. 초대교회는 집에서 모여 성찬/애찬을 나누고 예배 드렸다. 교회가 집에서 소그룹으로 모여 함께 음식을 나누고 성찬을 나누고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유대감을 갖게 된다. 초대교회가 자연스럽게 물질을 나눌 수 있었던 것은 가족이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2) 가족 공동체

우리 사회는 공동체성을 찾아보기 힘든 사회로 변하였다. 그나마 공동체성을 간직하고 있는 유일한 곳이 있다면 아마 가정일 것이다. 그러기에 교회가 공동체성을 회복해야한다는 말은 먼 이야기처럼 들리겠지만, 가정처럼 되어야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형제 · 자매된 가족 공동체: 예수님께서서는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마 23:8)고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형제 · 자매가 되었기 때문에 ‘랍비’, 즉 선생이라고 부르지 말라고 하셨다. 우리가 다 형제 · 자매가 되었다면 서로를 어떻게 부르는 것이 옳을까?

호칭은 서로의 관계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회사와 같은 상하조직에서는 사장님, 부장님 또는 과장님처럼 직책 명에 따라 호칭한다. 예수님께서서는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막 3:33-35)고 하셨다. 이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자신의 가족이라는 선언이다. 이처럼 교회는 더 이상 세속의 조직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정이다. 가정에서는 직분에 의한 호칭이 아

나라, 가족관계의 호칭을 따라야 마땅하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롬 16:13)고 하였다. 교회의 나이 드신 여성도를 어머니라고 부른 좋은 예이다. 직분에 따른 호칭은 은연 중에 조직에서의 계급적 지위를 더 각인시키고 계층적 구조를 더욱 심화시키지만, 가족 간의 호칭은 자연스레 따스한 관계를 만들어간다. 지금까지 교회에서 직분 명을 사용했기 때문에 교회를 가정보다는 조직으로 받아드린 측면이 있다. 이로 인해 조직체의 특성인 상하구조가 고착되고, 은사와 소명이 없는 자들이 직분만 탐하도록 조장되었음도 무시할 수 없다. 가정에서는 가족관계를 나타내는 호칭이 당연하지 않겠는가? 이제 조금은 어색할지 모르지만, 000장로님/집사님 대신 000형제님/자매님이라고 불러보자! 좀 더 익숙해져서 000형님/동생이라고 부른다면 얼마나 서로 친숙해질 것인가? 가족 간의 호칭을 통해 교회가 딱딱한 조직이 아니라 따스한 가정임을 더욱 느끼게 될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가족 공동체가 될 것이다.

소그룹으로 모이는 가족 공동체: 교회가 교회의 본질인 공동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가정 같은 교회’가 되어야 한다. ‘가정 같은 교회’가 되어야 성도들을 가족처럼 돌보고 개개인을 격려하고 권면하게 된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배우고 전인적으로 성장한다. ‘가정 같은 교회’에서는 각 지체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쉽게 발견할 수 있고 계발할 수 있다. 이런 환경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교회를 섬길 지도자들을 자연스럽게 육성할 수 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고전 12:25)는 말씀처럼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는 ‘가정 같은 교회’를 이루려면 소그룹이 최적의 장소다. 쉽게 서로 이해하고, 돌봄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수백 명이 모인 곳에서는 형식적인 인사는 가능하겠지만 가정과 같은 따스함을 느낄 수 없다. 가정과 같은 공동체를 이루려면 소그룹에 가족 구성원들이 모두 참석할 수 있어야 한다.

만일 자매들만 모인다거나 형제들만 모인다면 가정으로서의 교회를 실현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부부가 함께 참석할 수 있는 시간적인 배려와 함께 가족처럼 느낄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즐거움은 물론 어려움까지도 숨김없이 나눌 수 있는 정서적인 교감과 영적인 교통을 자연스럽게 나누는 곳이어야 한다.

영적 아버지가 있는 가족 공동체: 대부분의 무서운 범죄자 뒤에는 문제 있는 가정이 있다. 건강한 사회가 되려면 건강한 가정이 절대적이며, 건강한 가정이 되려면 온전한 부모의 역할이 필수적이다. 마찬가지로 교회에도 영적 부모가 없다면 영적인 양육이 불가능하기에 문제 있는 교인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뉴스에 쇠고랑 찬 장로나 목사가 종종 발견된다는 것은 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이는 교회 안에 설교자는 넘쳐나지만 영적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다. 개별적으로 교인들을 돌보는 영적 부모가 없는 교회는 가정이 아니라, 마치 원장에 의해 단체적으로 관리되는 고아원과 진배없다. 성경에서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권위를 주장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서, 마치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돌보는 것과 같이, 유순하게 처신하였습니다.”(살전 2:7, 표준새번역)라고 밝혔듯이 교회에는 사도보다 자기 자녀처럼 기르는 영적 어머니가 더 필수적이다. 왜냐하면 교회에 자기 자녀를 양육하듯이 교인들을 돌보는 영적 어머니가 없다면 교인들은 제멋대로 자라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설교가 어려운 사역임에는 틀림없지만 자기 자녀를 돌보는 것은 모든 정성을 다하고 속안의 자존심까지도 내어놓고 365일 24시간을 투자해야만 가능한 사역이다. 성경이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께서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살전 2:11)라고 말했듯이 교회에는 영적 아버지가 있어서 자기 자녀에게 하듯이 각 교인들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해야 한다. 왜냐하면 교회에 권면과 위로와 경계하는 영적 아버지가 없다면 제멋대로 행동하는 교인이 되기

때문이다. 교회들이 설교에 능한 목회자들을 주로 선호하기 때문에 설교에 능한 자는 많지만 영적 질서에 의해 지도받기는 싫어한다. 그 결과 영적 부모가 없어서 영적으로 제멋대로인 교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또한 신학교에는 신학에 정통한 신학자는 많지만 영적 부모가 없어서 인격적으로 안하무인인 목사들이 배출되고 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정이기 때문에 각 교인들을 자기 자녀처럼 양육하는 영적 어머니와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는 영적 아버지가 있어야만 한다. 쉽게 말해 교회는 고아원이 아니라 가정이기 때문이다.

3) 예배 공동체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셔서 교회로 부르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 뿐만 아니라, 아무리 전도와 봉사가 중요하더라도 천국에서까지 계속 지속되어야 할 유일한 것이 바로 예배이다. 따라서 교회는 그 무엇보다 예배에서 공동체성을 보여주어야 한다.

가족이 함께하는 예배 공동체: 예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모든 세대가 한 가족이 되어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야 한다.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공장이 더욱 효율적인 생산을 위해서 분업을 채택했듯이, 교회들이 예배의 효율성을 우선적으로 제고하면서 예배도 연령별로 나누어서 드리게 되었다. 대부분의 교회는 유초등부, 중고등부, 대학청년부, 장년부로 나누어 예배를 드린다. 물론 각 세대별 특성에 맞는 예배를 드리면 효율적이긴 하겠지만, 이로 인해 교회의 본질인 공동체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회사나 공장 같은 조직체는 핵심가치가 효율이기 때문에 분업화를 채택하는 것이 당연할 수 있지만, 유기체인 교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가치가 공동체이기 때문에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러나 많은 교회는 예배의 엄숙함을 유지하기 위해 어린 아이들이 주일 대예배에 참여하는 것을 금하고 유아실이라고 명명된 유리창 안에 가두어 놓았다. 그

경계 안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면허를 받은 듯이 유리창 속의 아이들은 예배 중에도 제멋대로 행동하는 습관을 갖고 자란다.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게 예배를 배우고 있는가? 신앙이란 원래 잔소리나 교육을 통해서가 아닌 직접 본보기를 통해 배워야 한다.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신 할아버지와 할머니께서 간절히 기도드리는 모습, 아빠와 엄마가 최선을 다해서 찬양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배워야 한다. 다소 어수선하더라도 온 세대가 모두 한 가족이 되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다가 어른 설교 순서가 되면 그 때부터 세대별로 예배를 드리는 방식을 실천하면 어떨까?

모두가 참여하는 예배 공동체: 예배의 내용에 있어서도 모든 세대가 공동체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으로 예배 공동체를 이루어야 한다. 우리 교회에서는 어린이도 장년과 함께 주일예배의 대표기도를 드린다. 어린이가 예배순서와 설교를 체험하며 온 교우들을 참여하는 모습은 실천하기에 그리 어렵지 않다. 어려서부터 예배 중에 하나님 나라를 기도로 섬기며, 진지한 모습으로 성경을 봉독하며, 장차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선지자의 모습을, 그리고 헌금을 봉헌하는 아이의 의젓한 모습에서 장차 전 생애를 하나님께 봉헌할 제자를 그려보며 매주 감격한다. 예배순서에 적극 참여하면서 평소 어리게만 보았던 아이들의 모습에 자연스럽게 예배와 섬김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은 크게 기뻐할 감사의 제목이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본질인 공동체가 교회의 핵심인 예배에서부터 회복되기를 기대하신다. 그러기에 더 이상 교회의 본질인 공동체성을 효율이라는 가치에 빼앗기지 말아야 할 것이다.

가정에서 모이는 예배 공동체: “초대교회를 본받자!”라는 구호를 예배당에 붙여놓거나 외친다고 초대교회의 역동성이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 초대교회와 같은 역동성을 맛보려면 초대교회처럼 주님의 몸 된 공동체를 이루어야 하며, 긴밀한 교제를 체험해야 한다. 초대교회는 집에서 떡을 떼고 음식을 함께 먹고 하나님께 예배드렸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및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고전 16:19)라는 말씀에서 보듯이 가정에서 모이는 공동체는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공동체성은 그에 적합한 구조인 가정에서 그 특성이 가장 잘 나타나기 때문이다. 초대교회의 역동성을 조금이나마 경험하기 위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구역별(순, 셀, 목장...) 주일예배를 드리는 것을 제안해 본다. 우리교회에서는 홀수 달 마지막 주일마다 구역별로 가정에 모여 주일예배를 드리고 있다. 지난 달 말에 드린 구역별 주일예배에서는 올해에 새로 구역장이 된 형제님이 예배를 인도하셨다. 처음으로 주일예배를 인도하는 부담이 있으셨기에 그 누구보다 정성껏 준비하여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였다. 진정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마음을 보시기에 모두에게 기쁨이 되는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 50년 동안 살아오면서 준비한 첫 설교인 자매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역사를 모두 보고 느낄 수 있었다.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에는 일방적인 설교가 아니라 모든 지체 간에 소통이 있는 말씀,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반응과 나눔이 함께 어우러진다는 감동이 있다. 실제로 한 형제님께서 구역별 주일예배에서 들은 말씀이 일주일 내내 마음속에서 살아서 움직이는 감격을 맛보았다고 간증하셨다. 또한 교회에 나오지 않는 남편을 위해 몇 년을 기도하시던 자매님의 기도가 응답되어 부부가 함께 나란히 앉아 예배드리는 감격도 함께 누릴 수 있었다. 가정이라는 공간과 적은 인원이 드리는 구역별 주일예배시간에는 어린 자녀들도 어느 때보다도 진진하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각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도드리고 축복한 후에 즐거운 애찬으로 이어졌다. 각자 준비해온 나물로 비빔밥을 함께 비벼먹으면서 형식적인 인사나 교제가 아닌 자연스럽고도 진정한 식탁 공동체가 이루어졌다. 확산하던, 각 교회들이 구역별 주일예배를 시도한다면 주님의 몸 된 교회 공동체를 맛보는 멋진 기회가 될 것이다.

4) 말씀 공동체

그리스도인은 매일 영의 양식인 말씀을 먹어야만 살 수 있다. 우리는 개인의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취하기도 하지만, 지체들을 통해서 공동체적으로도 공급받아야 한다. 교회의 본질이자 존재 양식이 공동체이라면 말씀의 영역에서도 공동체성이 나타나야 당연하다.

함께 묵상하고 나누는 말씀의 공동체: 우리 교회는 처음 시작부터 어떻게 하면 말씀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수 있을까를 진지하게 고민하였다. 이러한 고민과 더불어 지체들은 개인적으로 말씀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 나누는 기회를 가졌다. 그 당시에 대부분의 성도들이 '매일성경'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성도들이 이 묵상집을 이용하여 매일 같은 본문을 묵상하기로 하였다. 아이들을 비롯한 모든 성도들이 같은 본문으로 매일 QT를 하였다. 그리고 가정에서 부부간에 그리고 자녀들과 깨달은 말씀을 나누었다.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각 가정에 안에 풍성해졌으며, 각 지체들도 만날 때마다 각자가 말씀을 통해 깨달은 바들을 서로 나누는 기회가 많아졌다. 이를 계기로 하나님께서 여러 지체들을 통로로 사용하셔서 새롭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다. 매일 같은 본문으로 성경을 묵상하고 서로 나눔으로 말씀의 풍성함을 경험하였다. 교회에서는 누가 주일 설교를 담당하건 모든 성도들이 전 주에 공통으로 묵상한 본문을 설교본문으로 삼기로 결정했다. 물론 절기설교나 주제설교가 필요한 시기에는 예외였다. 주일설교의 본문이 자신이 매일 묵상했던 말씀이고, 또한 각자 깨달은 말씀을 생활에 적용하면서 승리의 기쁨과 패배의 쓰라림도 경험했기에 모두가 설교를 적극적으로 경청하였다. 말씀의 선포뿐 아니라 선포된 말씀에 대한 적용이 더 중요하기에 설교 직후에 각자가 깨달은 바를 나누면서 말씀에 반응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 일주일 내내 깊이 같은 본문을 묵상했던 성도들이기에 나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설교를 통해서 많은 도전과 은혜를 누리는 것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성도들이 실제 삶 속에

서 깨달은 바를 나눔으로서 공동체를 통해 새롭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주일마다 듣고 있다. 이처럼 교회가 말씀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지체들 간에 거침없이 그리고 풍성하게 흘러가게 된다.

진리로 인도함을 받는 말씀과 성령의 공동체: 예수님께서 장차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시자 제자들은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요 16:7a)고 하시면서 자신이 떠나가시는 것이 제자들에게 더 유익하다고 말씀하셨다. 아니 어찌하여 예수님께서 떠나시는 것이 함께 계시는 것보다 좋다는 말인가? 그 이유는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요 17:7b)라는 말씀으로 답이 주어졌다. 예수님께서 떠나셔야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것이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요 16:13a)기 때문이다. 세계적인 명설교가나 신학 박사학위를 몇 개나 받은 저명한 신학교수라도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보다 우리에게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없다. 따라서 목회자나 교사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성도들을 잘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성령님으로부터 모든 진리를 직접 인도받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그 분께로 안내하는 것이다.

최고급 요리가 얼마나 맛있었는지에 대해 백번 듣는 것보다 단 한번이라도 자신이 직접 먹어야 맛도 제대로 알 수 있고 건강해진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도 듣는 것에서 자신이 직접 먹는 것으로 나아가야 영적으로 더 건강해 질 수 있다. 아무리 많은 간접경험도 단 한 번의 직접경험만 못하듯이, 간접적으로 말씀을 많이 듣는 것으로 자신이 직접 말씀을 먹는 것을 대체할 수 없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제공되는 대량음식이 개개인의 필요에 따라 준비된 개별음식에 비교될 수 없듯이, 개개인의 상황을 아시는 성령님께서 개개인에 필요를 따라 주시는 말씀이 최고의 맞춤 건강식이다. 물론 신앙적으로 젓먹이일 때는 부드럽게 요리한 말씀을 입에 넣어 주어야하

지만, 먹기 쉽게 요리된 음식만 계속 준다면 절대로 건강하게 성장하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많은 성도들이 먹기 쉬운 말씀에만 익숙해있어서 좀 더 먹기 쉽고 입에 단 말씀을 제공하는 요리사만 찾아다니기에 바쁘다. 이처럼 단단하지만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거나 직접 먹으려하지 않기 때문에 이유식도 감당하지 못하는 영적인 유아들과 계속 앉아서 받아먹기만 하는 허약한 교인들이 넘쳐나게 되었다.

모두가 말씀 나눔에 참여하는 말씀 공동체: 온 지체들이 같은 본문으로 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말씀묵상집이 끝나는 짝수 달 마지막 주일에 '말씀 나눔 예배' (일명 QT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매일 아침마다 말씀묵상을 통해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신 말씀을 주일예배시간에 연령별 그리고 구역별로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첫 번째로 나선 초등 2학년생은 옆집 아줌마를 따라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쌍초신자(?)였기에 난생 처음으로 말씀묵상을 하였지만, 이 어린아이의 나눔을 통해 모든 교인들은 그 누구의 설교보다 복음의 능력을 감동적으로 깨닫게 되었다. 이어서 초등 5년생의 입을 통해서 가정예배의 기쁨과 중요성이 선포되었으며, 새신자인 자매님이 말씀의 적용을 통해 체험한 기도의 능력을 함께 경험할 수 있었다. 이 놀라운 말씀의 풍성함을 어찌 짧은 지면에 다 소개할 수 있으랴?

모든 성도들이 '말씀나눔예배' 를 통해 상상하지 못했던 말씀의 다양한 역사를 경험하면서, 현재는 매달 첫 주마다 '말씀나눔예배' 를 드리고 있다.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말씀묵상을 통해 진리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체험하도록 격려하고, 각자가 깨달은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교회적으로 가져보라! 성령님께서 말씀묵상을 통해 각 교인들 안에 얼마나 역동적으로 역사하시며, 교회가 말씀 공동체임을 얼마나 진하게 체험하는지, 그리고 말씀이 교회 안에 얼마나 풍성하게 넘쳐나는 지 경험하게 될 것이다.

5) 은사 공동체

하나님께서서는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도록 각 지체에 고유한 기능만 부여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하도록”(롬 12:6-7) 각각 다른 은사를 허락하셨다. 따라서 교회의 건강은 지체들에게 주어진 은사를 얼마나 발휘하는가에 달려있다. 어떤 이유에서건 각 지체에게 주어진 각양 은사들이 제한된다면 교회 공동체는 병약해질 수밖에 없다. 이는 교회가 건강하려면 무엇보다 은사 공동체가 되어야함을 의미한다.

모든 지체가 참여하는 은사 공동체: 사탄은 모든 성도들이 자신의 은사를 발휘하는 것을 두려워하기에 몇몇 지체들만이 은사를 인식하고 직분을 감당하는 구조를 조장하고 있다. 예수원의 고 대천덕 신부님께서도 사탄이 모든 성도들이 자신의 은사를 발견하고 발휘하는 교회 공동체의 비밀이 드러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기 때문에 신학적으로 성경적 교회론이 밝혀지는 것을 최대한 방해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다. 교회를 공격하는 최대 작전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모든 성도들이 각각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각양 은사가 주어졌음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몸이 건강해지는 첫 발걸음은 모든 성도들이 각기 다른 은사를 갖고 있고, 서로 다른 은사들이 모두 발휘될 때 그리스도의 몸이 건강해짐을 깨닫는 것이다. 다음으로 각 성도들의 은사가 발휘되는 것을 방해하는 구조적 제약들을 제거해야 한다. 교회 공동체는 은사가 있음에도 그 은사를 발휘할 수 없는 환경이거나, 은사가 없음에도 마치 그 은사가 있는 양 직분을 감당하도록 내버려두어서는 안 된다.

은사에 의해 직분이 주어지는 은사 공동체: 성경은 은사와 직분과 사역의 관계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고전 12:4-6)라고 하면서 성령/성자/성부는 한분 이시지만 은사/직분/사역은 여러 가지라고 말한다. 은사와 직분과 사역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성경은 은사-직분-사역의 순서로 설명한 것은 우연이 아닐 것이다. 이는 은사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성령의 뜻대로 주어졌으므로, 은사에 의해서 직분이 주어져야 하며, 주어진 직분에 의해 사역이 이루어져야함을 의미한다. 즉 성령의 뜻대로 목회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목회자의 직분을 맡고, 목회자의 직분을 맡은 자가 여러 사람들과 함께 목회사역을 해야 한다. 왜냐하면 목회자의 직분이 맡겨진다고 목회의 은사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며, 목회의 은사가 없는 분에게 사역의 열매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국 교회의 문제를 리더십의 문제로 진단할 때, 이는 교회 지도자 양성의 문제로 귀결된다. 교회사역을 위해 신학교육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신학교육이 결단코 목회의 은사를 주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신학교육은 목회의 은사가 열매로 검증된 자들에게 전문적 지식을 전수하는 과정이어야지, 교회의 리더십을 만드는 제도적 장치가 되어서는 안 된다. 사람의 인위적인 제도가 성령님의 역사를 앞서서도 안 되고 방해해서도 안 된다. 목회뿐 아니라 교회의 모든 직분과 사역은 먼저 열매에 의해 은사가 점검된 후에 맡겨져야 한다.

인위적 구조에 제한받지 않는 은사 공동체: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는 인위적인 제한들은 성도들이 가진 은사들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장하기도 한다. 교회 안의 인위적인 제한이 생긴 주요 원인은 교회의 규모가 커지면서 세속의 논리로 만들어진 방법과 구조가 교회 안으로 도입되었기 때문이다. 저런 일은 이런 경력이 있어야 가능하고 이런 일은 저런 자격증이

필요하다는 등의 세상의 방법들이 교회의 운영 규칙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세상의 방법들을 도용하여 만든 교회의 운영방식은 하나님이 부여한 은사들의 활용을 방해할 뿐 아니라 경력이 은사를 대치하고 자격증이 은사보다 더 중요하게 만들었다. 이로 인해 발생한 은사의 직무유기는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건강까지 해칠 정도로 과도한 사역에 시달리도록 만들었고, 자신에게 부여되지 않은 은사의 영역까지도 감당하게 만들었다. 이로 인해 없는 은사도 있는 것인 양 과장하게 되고 모든 사역을 관장하므로 인해 직무유기의 반대급부인 직무남용의 현상까지 생기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사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원리대로 사용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은 은사를 땅에 묻어둔 직무유기의 죄를 회개하고, 은사의 직무유기를 방조하는 세상의 제한들을 철폐해야 한다. 또한 자격증으로 은사를 대치하는 세상의 방법을 몰아내고, 은사 없이 제 마음대로 사역을 관장하는 직무남용도 과감하게 물리쳐야 할 것이다.

복수 리더십으로 섬기는 은사 공동체: 교회는 그리스도인으로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따라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즉 공동체로 존재해야 하는 동시에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모든 결정이 이루어지고 움직여야 한다. 신약성경은 이와 같은 교회를 위해 복수 리더십을 제시하고 있다. 신약성경은 대표적인 교회 지도자인 장로에 대해 모두 복수로 표현하고 있으며, 장로들은 모든 사역을 함께 결정하였다. 이는 한 사람에게 의해서 교회 사역이 주도되는 위험을 막기 위한 구조적 장치이다. 그 어떤 리더라 할지라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며, 이러한 부족함은 상호책임 하에 짐을 서로 지어야 한다. 그래야만 한 사람에게 의한 독주와 실수를 예방할 수 있고, 사역에 따르는 책임도 서로 공유할 수 있다. 리더십 안에서의 우열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리더십의 결정이 교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떤 결정을 하든지 더디고 좀 덜 효율적이라도 한 마음으로 묶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사실 교회 문제의 대부분은 리더십의

문제이며, 리더십의 문제는 대부분 단임 목사제도에 의해 한 사람에게 모든 책임과 권한까지 집중되는데 기인한다. 복수 리더십으로 공동체를 이루려면 교회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는 주님의 몸이어야 한다.

6) 복음 공동체

감당해야 할 사역들이 많겠지만, 교회는 제자들의 공동체로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을 최우선적으로 이어가야 한다. 예수님께서서는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teaching),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preaching),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healing).”(마 9:35) 이처럼 예수님께서서 복음전파와 치유사역을 제자들에게 몸소 보여주시고는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불러 모으신 후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셨다.”(눅 9:1-2) 이에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쳤다.”(눅 9:6) 사실 예수님의 복음전파와 치유사역이 제자들에게 이어졌기에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교회도 복음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복음을 선포하는 복음 공동체: 예수님께서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신 후, 이 땅에서의 사역을 공식적으로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로 선포하신 것은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막 1:15)는 말씀이었다. 그렇게 예수님의 공생애는 복음의 선포와 함께 시작되었다. 그러기에 교회의 모든 사역은 복음으로 시작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는 복음에 대한 열정이 점차 식어가고 있다. 한편 복음의 현대화(?)라는 미명하에 재미있는 복음을 추구하면서 복음이 부담 없는 축복 이야기로 변질되었다. 복음집회는 흥미로운 볼거리와 푸짐한 상품들만 돋보이는 행사가 되었다. 인간이 아

무리 지혜를 짜낼지라도 하나님의 지혜를 당해낼 수 없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고전 1:21)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신다. 예수님께서 하나님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한다고 조금의 가감도 없이 복음을 선포하셨듯이,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인 교회도 복음을 그대로 선포해야 한다.

영혼구원에 전력하는 복음 공동체: 예수님께서서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마 16:26)고 말씀하셨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이 한 영혼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흔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다.”(눅 15:7)고 하셨다. 잃어버린 한 영혼이 회개하여 돌아온 것을 그 무엇보다 기뻐한다면, 교회가 가장 기뻐해야 할 것도 다름 아닌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어야 한다. 예수님께서서는 “네 보물 있는 그 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마 6:21)고 말씀하시면서 재물이 투자된 곳에 바로 마음도 있다고 하셨다. 만일 건강에 가장 많은 재정을 사용한다면 건강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이고, 자녀교육에 가장 많은 재정을 투입한다면 자녀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일 것이다. 만일 선교에 가장 많은 재정을 투입한다면 선교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교회이고, 건축에 가장 많은 재정을 투자하면 건물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교회일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가장 가치 있는 영혼구원에 전력을 다하는 복음 공동체가 되어야 마땅하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은 복음 공동체: 교회나 선교기관마다 그 어느 때보다 집중적인 전도훈련이나 다양한 선교세미나들이 넘쳐나지만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 나서는 그리스도인들은 많지 않은 것 같다. 물론 전도에 관

한 훈련을 받을수록 도움이 되겠지만,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없다면 이 모든 방법들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 혹시 자신의 자녀를 잃었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정말 미친 듯이 아이를 찾아 나섰던 기억이 생생할 것이다. 이런 경험이 없으신 분들께서는 자신의 자녀를 지금 잃었다고 상상해보다면, 당장 자녀를 찾아 나서서 어디를 가서라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는가? 주님께서도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백 마리가 있는데 그 중의 하나를 잃으면 아흔아홉 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 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눅 15:4)고 말씀하셨다. 잃어버린 자식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져야 자기 자식을 잃은 부모처럼 정말 미친 듯이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나설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잃어버린 영혼들은 우리들의 잃어버린 형제이고 자매이다. 따라서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나서는 복음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7) 교육 공동체

부모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시간과 물질도 아낌없이 투자하는 것이 바로 자녀교육이다. 왜냐하면 자녀교육은 부모라면 결단코 피하거나 포기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의무이자 특권이기 때문이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자녀의 영역에서 순종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들이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신앙 고백해야 할 영역이 바로 자녀교육 영역이다. 아무리 시간과 물질의 주되심을 고백하며 열정적으로 봉사하더라도 가장 중요하다는 자녀교육을 신앙고백하지 않는다면 핵심을 놓친 것이다. 이처럼 자녀교육이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사항이라면 그 무엇보다 공동체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도 바로 자녀교육이다.

원안(原案) 교육을 회복하는 교육 공동체: 하나님께서는 자녀교육의 책임을 부모에게 맡기셨다. 자녀를 맡은 청지기로서 부모는 주인이신 하나님께

서 원하시는 교육을 해야 한다. 그러나 마치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들의 판단에 좋기만 하면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고자’ 했던 것처럼 이방의 제도를 따라하던 구태가 우리의 교육영역에서도 반복되고 있다. 성과와 효율이라는 명목 하에 교육을 전문가에게 일임하면서 가정과 교육이 분리되었고, 교회와 교육도 분리되었다. 하나님의 처음 디자인에서 떨어진 교육의 분업화(?)는 수많은 문제들을 발생시켰다. 교육의 문제가 점차 커지자 사람들이 나름대로 대안을 찾아 나섰지만, 대안은 어디까지 대안일 뿐이다. 교육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교육의 문제점을 보완할 대안(代案) 교육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셨던 원안(原案) 교육으로 돌아가야 한다. 원안 교육이란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키워내는 교육을 말한다. 한국 사람이 얼마나 교육열이 강한지는 이미 전 세계에 잘 알려져 있다. 그래서 인지 사탄은 가장 중요한 가정과 교회를 파괴시키려고 한국 사람들의 왜곡된 교육열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다. 이 땅에서 사는 부모로서 교육으로부터 자유로운 부모는 없다. 그만큼 교육이 제자리를 이탈하면 모든 것을 파괴하는 가공할만한 무기로 변질될 수 있다. 우리는 수험생 가정의 살벌함과 조기 유학생들의 혼란, 기러기 아빠의 방황이 어떠한지 잘 알고 있다. 이는 교육이라는 명목 하에 파괴된 가정의 모습이기도 하다. 또한, 주일학교의 축소, 중고등부의 유명무실, 청년대학부의 몰락 등이 보여주듯이 교육이라는 거센 바람에 교회마저도 흔들리고 있음을 목격하고 있다. 대안이 아닌 원안으로 돌아가야 할 때이다.

기독교 교육의 목표를 이루는 교육 공동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엡 4:15)는 말 씀처럼 모든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목표는 범사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는 것이다. 이 목표를 이루려면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져야 한다.”(엡 4:16) 실제적으로 우리 몸

안에는 다른 지체의 도움 없이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지체는 없다. 또한 우리 몸의 모든 지체들은 스스로의 존재를 알들 모르든 예외 없이 다른 지체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이는 기독교 교육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 된 공동체를 이루어야함을 의미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한다는 것은 기독교 교육의 최종 목표가 되어야한다. 이 목표는 각 마디가 연결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결국 부모들이 바른 목표를 갖고 바른 방안을 선택할 때 가능하다. 그런 맥락에서 기독교 교육은 자녀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의 문제이고, 교육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의 공동체성 회복의 문제로 봐야 할 것이다.

다양한 은사로 섬기는 교육 공동체: 교회의 공동체성이 회복되어 ‘가정 같은 교회’를 이루게 되면 모든 자녀들을 우리들의 자녀로 인식하므로 교육 공동체, 즉 ‘학교 같은 교회’로 자연스레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 교육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자녀가 곧 학생이고, 우리 부모들이 곧 교사이다. 가정과 교회가 학교이자 배움의 장이다. 모든 지체들이 각자의 은사를 따라 자녀교육에 참여하는 ‘학교 같은 교회’야말로 전인적인 교육이 실현되어 신앙으로 무장될 뿐 아니라 실력 있는 지도자로 육성되는 보금자리이다. 우리 조상들이 품앗이로 서로 도왔듯이, 교사, 재정, 수업을 위한 장소 등과 같이 각 가정이 갖고 있는 달란트와 소유로 서로 도움 주고 도움 받음으로 교육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 각 가정들이 공동체적으로 서로의 부족함을 채운다면 시너지 효과로 인해 현실 교육의 높은 벽도 함께 넘어설 수 있다. 또한, 교육 공동체를 튼튼히 세우면 어려운 가정의 자녀들도 기독교 교육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신앙공동체, 생활공동체, 그리고 교육공동체로 세우셨다.

원래 가정, 교회, 학교는 분리된 독립기관이 아니라 한 공동체이었다. 현재 제기되고 있는 많은 가정과 교회와 학교의 문제들은 공동체성의 회복,

즉 ‘가정 같은 교회’와 ‘학교 같은 교회’를 통해서 극복될 수 있을 것이다.

주일학교에서 교회학교로의 교육 공동체: 일주일에 1시간 동안만 태권도를 배운 사람과 매일 8시간 동안 정기적으로 배우고 추가로 고액을 들여서 교수에게 늦은 밤까지 더 배운 사람을 서로 비교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진다. 교회교육과 학교교육의 관계를 말함이다. 일주일에 1시간도 채 안 되는 신앙교육을 가지고 한 주에 수십 시간을 교육하는 학교와 대결을 벌이겠다. 자녀들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인본주의 교육을 받는 반면 교회의 교육은 이렇다할 발전이 없다. 각 교회의 유소년부, 중고등부, 대학청년부의 참여인원을 보면 쉽사리 판명된다.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자녀들을 몰아넣고는 훌륭한 믿음의 자녀로 자라나기를 기대하고 있다. 자녀들의 생각과 삶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려면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해야 한다.”(고후 10:5) 그렇게 모든 과목을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하여 교육해도 시원치 않은 판국이지만 현실은 거꾸로 가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바로잡으려면 단순히 일주일에 한번 그리고 성경만 교육하는 주일 학교(Sunday School)에서 벗어나 매일의 삶 속에서 모든 과목을 통해 예수님의 제자를 목표로 전인적으로 양육하는 교회 학교(Church School)로 전환해야 한다. 대부분이 명문학교의 입학과 세상의 성공을 목표로 교육에 매진하는 현실 속에서 교회 학교를 시작하려면 교육에 대한 부모와 지도자들의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한다. 교회학교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미 학생, 교사, 교실이 모두 구비되어 있다. 그러므로 무조건 안된다고 할 것이 아니라 부모들은 자녀교육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야 한다. 한편 교회 지도자들은 교회 공동체와 기독교 교육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면서 새로운 교회 학교에 대한 밑그림을 다시 그릴 필요가 있다.

8) 재생산 공동체

모든 생명체들은 세포 하나가 무한정 커지는 것이 아니라, 세포가 적정 크기가 되면 계속 나뉘는 분할의 과정을 통해 성장한다. 이와 같은 분할을 통한 성장원리는 모든 생명체에 적용되는 하나님의 창조섭리이기에 이에 반하는 방법으로 커지기를 시도하는 생명체는 병들어 죽고 만다.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창조섭리에 의해서만 자라나듯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도 조직이 아니라 유기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섭리에 의해서 분할되어야 건강하게 성장해나갈 수 있다.

창조의 섭리로 자라나는 재생산 공동체: 어떤 세포가 적정 크기가 되었는데도 분할하지 않고 계속 커지기를 고집한다면 언젠가는 성장한계에 다다라서 심각한 병에 걸리게 되듯이, 하나님의 창조섭리를 거스르는 교회에도 같은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하나의 세포가 멍멍 불어 커지다가 빈껍데기만 남듯이, 하나님의 창조섭리를 거스르던 유럽의 교회들이 이제는 관광객만이 구경삼아 드나드는 커다란 예배당만이 텅그러니 남아있는 것은 명백한 역사적 증거이다. 반면에 역사상 질적으로뿐 아니라 양적으로 가장 급속도로 성장했던 초대교회는 바로 가정교회라는 셀의 형태를 가지고 있었기에 적정 크기가 되면 세포처럼 계속 나뉘었다. 이처럼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창조섭리를 따랐기 때문에 그 어떤 교회보다도 빠르고도 건강하게 성장하는 재생산 공동체였다.

분가로 증식되는 재생산 공동체: 가족 같은 공동체성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에 교회가 반드시 가져야 할 정체성인 동시에 건강한 성장을 결정짓는 중대한 요소이기도 하다. 따라서 교회가 가족 같은 공동체성을 유지할 수 없는 적정규모를 넘어선다면 멧가를 치러서라도 과감하게 하나님의 창조섭리를 따라 분가를 단행하여야 한다. 교인의 수가 서로를 잘 알 수 없는 규모를 넘어서면 걸치레하기 쉽다. 따라서 서로의 형편을

알기 어려운 규모를 넘어서기 시작한다면 분가를 생각해야 한다. 교회를 분가해야 하는 이유는 교인들이 모두 모이기에 장소가 부족하다거나 거리가 너무 멀다거나 정책적 고려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교회의 정체성을 지키며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섭리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개발한 각종 교회성장론을 따르면 조직체로서의 교회는 커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건강할 수는 없다.

모든 생명체가 그러하듯이 주님의 몸인 교회 공동체도 인간의 방법론이 아닌 하나님의 창조섭리를 따라 재생산 공동체가 될 때만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 우리 주님께서도 대부분의 시간을 재생산이 가능한 제자들을 양육하는데 집중하셨다. 바울도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딤후 2:2)고 하면서 재생산이 가능한 제자삼기에 전력을 다하였다. 그 이유를 하루에 10명씩이나 전도하는 전도자와 1년에 한 사람을 제자로 키우는 양육자를 비교하여 알아보자. 전도자는 1년 후에 3,650명의 신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데 비해 양육자는 자기를 포함해서 2명의 제자밖에는 얻지를 못한다. 이를 N년 후에 적용해 보면 전도자는 3,650XN 명을 전도하게 되고, 양육자는 2의 N승 명의 제자를 얻게 된다. 초기 몇 년간은 양육자가 얻은 제자의 수는 전도자가 얻는 사람의 수에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보잘 것이 없다. 그러나 30년 후에는 전도자는 약 10만 명을 전도하는 반면에, 양육자는 약 10억 명의 제자를 얻게 된다. 이는 제자의 증식뿐 아니라 교회의 증식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재생산이 가능한 공동체는 교회의 건강과 성장을 위한 하나님의 최고의 전략이다.

분가를 적용하는 재생산 공동체: 예수촌 교회가 아이들까지 포함하여 80여 명에 이르자 서로 깊이 교제하기에는 너무 많다는 의견이 2011년부터 대두되었다. 이에 분가에 대해 모든 지체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가졌는데, 대부분의 성도들은 분가에 동의했지만 몇몇 성도들은 분가에 대한 부담을 갖

고 있었다. 이에 2012년 초부터 모두가 한 마음으로 분가를 결정할 수 있을 때까지 기도하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서로 의견을 나누고 모으는 1년간의 여정이 시작되었다. 많은 소통과 나눔을 통해 분가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분가하기 위해 모든 지체들이 각자 원하는 대로 대그룹과 소그룹을 선택하는 방법을 택했다. 여기서 소그룹은 교회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최소 3가정에서 최대 5가정까지로 구성하기로 하였다. 교회가 분가하면 각자가 감당해야 할 부담이 많아짐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핵심인 공동체성을 지켜나가기 위해 분가의 길을 택하였다. 2013년 3월 17일 예수촌 교회는 세 개의 교회로 분가되었으며, 이를 통해 예수촌교회가 시작하면서 비전으로 품었던 CLC(Cell, Local, Celebration Church)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앞으로 계속 분가하는 교회들도 예수촌 교회의 핵심가치를 함께 공유하기로 하였다. 각 가정에서도 자녀가 성장하면 자연스럽게 자신의 가정을 이루어 분가하듯이, 교회도 재생산이 가능한 교회들로 계속 분가하는 재생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4. 이 시대의 재세례신자들의 교회가 주는 교훈

기독교의 부패가 극에 다다랐던 16세기에 종교개혁의 깃발이 높이 휘날렸지만,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제한으로 인해 온전한 개혁을 이루지 못했다. 스위스 취리히에서 츠빙글리의 지도하에 성경 원전을 깊이 연구하던 청년들은 성경이 말하는 신앙과 교회로의 회복을 주저하던 스승에게 실망을 하였다. 이에 그들은 성경대로의 신앙과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자신들의 생명을 걸었다. 재세례신앙의 핵심가치인 공동체 · 제자도 · 평화는 16세기의 재세례신자들이 성경 원전을 공부하면서 발견한 것들이며, 그들은 이 핵심가치들을 실제 삶 속에서 구현해내기 위해 순교의 피를 뿌려야 했다. 너무나 혹독한 고난의 시간들은 이들로 하여금 사회로부터 도피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으며, 이로 인해 사회와 완전히 분리된 그룹이 형성되기도 하고, 핵심가치 중에 어떤 부분만 더 강조되거나 약간의 변화를 주게 되었다.

본인이 교회서 서적을 통해 재세례신자들을 만나게 되면서 재세례신앙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다. 재세례신자의 하나인 메노나이트들과 교제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고, 2004년에는 그들이 많이 거주하는 미국의 고센에서 안식년을 갖게 되었다. 고센과 인접도시인 엘크하르트에는 메노나이트의 가장 큰 대학과 유일한 신학대학원이 있는 지역이다. 따라서 그 지역에는 거리마다 메노나이트 교회가 있어서 그곳에 머무는 동안 다양한 메노나이트 교회들을 경험할 수 있었다. 그들을 삶을 직접 보면서 아직도 그들에게 생생하게 남아있는 제자도, 특히 단순한 삶이 가장 감동적이었다. 16세기의 순수했던 재세례신앙이 계속 이어지려면 이 시대의 재세례 교회들이 개혁해야 할 요소들이 무엇인지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본인은 재세례신앙을 책을 통해서 처음 알게 되었기 때문에 다소 이상적인 관점을 갖고 있으며, 경험 역시 개인적이고도 매우 제한적이라는 전제하에 개혁이 필요한 부분들을 조심스레 언급하고자 한다. 칭찬의 말보다 비판의 말은 듣기는 힘든데, 말하기는 듣기 보다 더 힘들다. 그러나 다음에 제시하는 제안들은 16세기의 재세례신앙이 계속 이어져야 할 뿐 아니라 더 풍성해지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서 나왔음을 밝혀둔다. 또한 다음에 제시된 약한 모습들은 이미 우리에게도 나타난 것들이기에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주제이기도 하다.

조직체에서 공동체로의 회복: 16세기의 재세례신자들의 교회는 초대교회처럼 가정교회였고, 모든 필요를 함께 나누는 공동체였다. 지금의 메노나이트 교회들이 사회에 좋은 영향력을 많이 끼치는 것이 사실이지만, 교회의 공동체성은 점차 상실되고 있다. 이는 그들이 도시로 유입되면서 개인주의와 같은 사회의 보편화된 가치관과 현대 사회의 구조 속에서의 바쁜 일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환경적 요인과 함께, 도시 교회의 규모가 커지면서 그에 적절한 구조를 갖게 되면서 나타난 것 같다. 북미 사회를 뒤덮고 있는 개인주의는 교회의 지체들을 가족처럼 여기던 것에서 가급적 서로 상관하지 않

는 관계로 변모되었다. 경쟁 사회 속의 바쁜 일상으로 인해 주일예배 외의 모임들은 점차 사라져갔다. 고센과 엘크하르트 지역에는 수십 개의 메노나이트 교회가 있지만 주중에 소그룹 모임이 있는 교회는 단 1개만 남아있었다. 교회의 규모가 커지면 지체간의 깊은 교제는 어렵기 마련이고, 큰 규모의 교회를 운영하려면 전문가를 필요로 하게 된다. 이로 인해 모든 지체들이 교회의 사역에 참여하였던 모습이 사라지고 이제는 타 교단처럼 신대원을 졸업한 목회자들이 교회의 사역을 주로 맡고 있었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사역은 목회자들에 의해 진행되고, 회중들은 후원자에 머무르게 되었다. 이런 상황은 점차 지체간의 깊은 교제가 의사결정을 위한 회의로 대체되었으며, 대부분의 사역은 전문가들에 의해서 주도되게 되었고, 교회가 감당했던 전도와 구제 사역들도 선교단체나 구호단체와 같은 전문기관으로 이관되었다. 이처럼 교회가 점진적으로 공동체보다는 조직의 구조를 갖게 되었다.

이로부터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교회의 정체성이자 존재방식인 공동체를 지키려면, 초대교회와 16세기의 재세례 교회처럼 작은 규모의 가정 공동체와 은사를 따라 모두가 참여하는 사역 공동체를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한다. 교회는 조직체에서 다시금 공동체로 회복되어야 한다.

규범의 제자도에서 영성의 제자도로의 회복: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제자이며, 그의 삶을 본으로 삼아 살아가는 것이 제자도이다. 16세기의 재세례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특히 산상수훈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쳤다. 이는 가톨릭이나 개혁교회가 감당할 수 없는 큰 부담인 동시에 엄청난 도전이기도 했다. 이로 인해 무서운 박해가 재세례신자들의 교회에 가해졌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제자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그들도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이겨낼 수 있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다. 본인이 1년 동안 메노나이트 교회에 머물면서 의아했던 것은 설교에서 성령

에 대해서 다루거나, 기도에서 성령을 의지하거나, 지체들의 교제에서 성령에 대한 언급조차 없다는 것이었다. 16세기의 재세례신자들이 깊은 영성으로 추구하던 제자도가 도덕과 문화의 형태로 대체되면서 역동적인 간증은 사라지고 제자도는 점차 지켜야 할 규범들로 대치되고 있었다.

비슷한 현상이 한국 교회에는 제자도의 핵심인 삶의 열매와 영성은 희미해지고 단지 주일성수나 십일조와 같은 겉보기에 매달리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로부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교훈은 역동적인 제자도를 이루려면 깊은 영성과 성령님의 도움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제 교회는 규범을 중요시하는 제자도에서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영성의 제자도로 회복되어야 한다.

비폭력에서 화목으로의 회복: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뜻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분리된 모든 만물이 화목케 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를 자신과 화목하게 하셨을 뿐 아니라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 따라서 모든 그리스도인의 사역의 중심은 화목이다. 우리가 우선적으로 감당해야 할 화목은 죄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의 화목이며, 다음으로 하나님이 없음으로 인해 깨어져버린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목이다. 그러나 재세례신자들에게 극도로 심한 박해가 오랜 시간동안 가해졌던 역사적 상황은 그들로 하여금 세상과 분리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어졌다. 이로 인해 이들이 화목의 직책을 감당할 수 없게 되었고, 화목의 한부분인 비폭력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하였다. 그래서 점차 그들에게 하나님과의 화목보다는 사람간의 화목이 더 중요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평화의 하나님(God of peace)보다는 하나님의 평화(peace of God)를 더 강조되게 되었다. 비폭력에 대한 강조는 신학적 측면에서는 신앙의 회색지대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들은 단호하게 주장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갖고 있기에 성경에 분명하게 나타난 부분에 대해서도 신학적으로 애매모호한 입장에 서곤 한다. 예를 들어 동성애에 대해서 모든 사

안과 입장을 고려하다보니 끊임 없는 토론만 이어가고 있으며, 창조론과 진화론 사이에서 이도 저도 아닌 입장에 서기도 한다. 평화의 하나님이 없이는 하나님의 평화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으며, 하나님의 백성이 이루어야 할 목표는 비폭력이 아니라 평화이다. 왜냐하면 비폭력은 평화의 일부이며, 또한 평화를 이루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16세기의 재세례신자들은 목숨을 걸고 전도를 했으며, 성경의 진리를 단호하게 주장했을 뿐 아니라 지켜나갔다. 이제 우리도 이들을 본받아 하나님께서 맡기신 선교와 평화를 모두 감당하는 화목 공동체와 진리를 수호하고 선포하는 진리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이제 교회는 비폭력뿐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사이의 평화를 이루는 화목의 직책을 회복해야한다.

5. 마무리하면서

재세례신자는 우리가 본받아야할 신앙의 대선배이며, 그들의 신앙은 우리가 지켜야할 소중한 신앙의 유산이다. 재세례신앙이 귀한 이유는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할 대상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목표가 성경의 신앙과 교회를 이루는 것이었으며 엄청난 박해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신앙과 교회를 삶으로 실천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우리에게 공동·제자도·평화라는 소중한 신앙의 핵심을 남겨주었으며, 이제 이것을 회복하고 실천할 뿐 아니라 다음 세대로 이어야할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재세례신앙의 핵심가치가 실천되어야할 곳이 교회이며, 세상으로 확장시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하나님의 대리자 역시 교회이다. 교회가 이 역할을 해내려면 성경이 말하는 대로의 교회, 즉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야한다. 따라서 재세례 신앙의 회복 및 실천은 교회의 공동체성에 달려있으므로, 이 시대의 교회가 집중해야할 것은 교회의 공동체성의 회복과 실천이다.

교회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사명은 성경의 신앙의 원리와 교회를 각자가 처한 환경과 문화 속에서 실제로 드러나야 한다. 성경에 나타난 신앙의

원리와 가치는 어떤 경우에도 변질될 수 없으며, 단지 각자의 처한 환경과 문화의 옷을 입을 따름이다. 따라서 각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갖던 간에 성경의 신앙 원리와 가치를 지켜나가기 위해 서로를 존중하며 교제와 격려가 필요하다.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재세례신앙을 귀히 여기는 교회들이 급속도로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 놀라운 것은 자생적으로 생겨난 교회들이 많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한인들을 중심으로 KAF(Korean Anabaptist Fellowship)가 형성되어 재세례신앙을 더 연구하고 협력할 수 있게 되었다. 재세례신앙의 핵심가치와 신앙고백을 공유한 교회들이 서로를 격려하면서 재세례신앙을 더 풍성하게 누릴 뿐 아니라, 더 많은 교회들과 재세례신앙을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아나뱃티스트 신학 컨퍼런스 안내

아나뱃티스트 신학 1차 논문발표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아나뱃티스트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참된 교회와 평화, 제자도에 대한 갈망이 그만큼 크다는 방증입니다. 동시에 자신을 직간접적으로 아나뱃티스트라고 하면서도 정작 아나뱃티스트의 전통과 정체성, 역사와 신학에 대해 잘 모르고 있고, 그러기에 더 알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아나뱃티스트에 대한 오해와 비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해서, 아나뱃티스트가 무엇인지, 어떤 사람들인지, 어떻게 아나뱃티스트가 시작되었고, 왜 이들은 순교적 각오로 신앙을 지켰는지, 그리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하여 아나뱃티스트 실천가와 연구자들이 함께 모여 한국의 아나뱃티스트의 좌표를 설정하고, 가야할 로드맵을 구성해 보고 싶습니다.

논문 발표 시기는 최초의 아나뱃티스트로서 침례를 받은 1월 21일(?) 경에 맞출까 합니다. 종교개혁 주간에 할 것인지, 아니면 독자적으로 아나뱃티스트 주간을 만들어 진행할 지를 의논했습니다. 대체로 종교개혁 주간에는 여러 행사가 겹치고, 준비 기간으로는 촉박하고, 무엇보다도 아나뱃티스트의 고유한 정신과 실천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1월에 하자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1년에 한 차례 정도 논문발표회를 열 계획입니다. 그 결과물은 책으로 출판합니다. 첫 번째 발표회이기에 주제는 “왜 아나뱃티스트인가? 무엇이 아나뱃티스트인가?”(Why Anabaptist? What Anabaptist?, 잠정적 제목입니다.)입니다.

니다. 아나뱃티스트 운동의 다양한 측면을 소개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논문의 성격은 지나치게 학술적이기 보다는 신학을 전공하지 않은 아나뱃티스트 신자와 관심 있는 대중이라면 누구나 읽을 수 있는 정도의 글이 되도록 할 참입니다.

현재는 논문발표자를 섭외하고 있습니다. 혹 참여를 원하거나 추천할 분이 있으면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격은 석사 학위 이상 취득자입니다.

시작은 하지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전공자와 연구자 풀이 너무 좁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광범위하고도 다양한 연구자를 네트워크할 것이고, 새로운 연구자를 찾아내기를 기대합니다. 아나뱃티스트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고, 이해를 증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찌되었건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와 참여,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김기현 소장

(한국 아나뱃티스트 신학연구소, Korea Anabaptist Institute, 로고스서원 대표)

BFC2: “평화주의자 교회”로서의 “평화 교회”¹⁾

지난 호부터 연재하는 BFC 시리즈는 2009년부터 현재까지 캐나다 메노나이트 교회가 이 시대에 교회 앞에 주어진 당면한 문제들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분별의 과정입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교회로 살아가기 위한 형제교회가 기울인 노력을 통해 공동체의 분별에 대해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로버트 수더만 (Robert J. Suderman)

배경

이 과는 첫 번째 과, “신실한 교회로 세워가기: 성경해석의 진행 가운데 [역동적 성경해석에 있어서] 영적인 것들을 시험하기”를 기반으로 했다. 각 교회의 대표들이 총회에서 인준한 첫 번째 과는 성경적/영적 분별을 위해 필요한 필수 요소를 확립하려는 본질적인 노력을 토대로 한다.

첫 번째 과에 명시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캐나다 메노나이트 총회는 메노나이트 교회가 계속적으로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교회가 우리 시대의 주요 사안들에 관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전반적인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믿는다.(p.1)

1. 스스로를 평화에 헌신한 교회로 인식하지만 그것의 의미를 비폭력과 평화주의(pacifism)에 헌신하는 것으로 이해하지는 않는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이러한 교회들의 입장을 존중하기 위해 평화교회(Peace church)와 평화주의자 교회(Pacifist church)를 구분하였다. 사실상 평화교회의 입장을 취하는 많은 교회들은 특정 조건들과 기준들에 부합하는 한 폭력과 전쟁이 정당화 될 수 있다는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몇 가지 주제들은 이 시대의 교회생활에 아주 중요한 주제들로 확인되었다. 그 주제들은 다음과 같다.(p.1)

- a) 교회 안에 존재하는 일치점과 다양성
- b) 평화 교회가 되는 것
- c) 종교 다원주의 상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증거 함
- d) 교회 삶 안에서 인간의 성
- e) 믿음의 관점으로 본 환경 문제

또한 함께 분별하기 위해 필요한 약속들을 다음과 같이 서술했다.(p.1)

- 1) 우리는 함께 성경을 공부하고 그 가르침을 탐구하기로 서로에게 약속한다.
- 2)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사랑의 대화를 통해 서로 다름에서 오는 짐을 함께 지기로 약속한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들이다. 우리는 성령님이 필요에 따라서 더 깊은 진리와 회개로 인도하심을 믿는다.
- 3) 우리는 서로를 돌아보고 기도할 것을 약속한다.
- 4) 우리는 서로에게 열린 마음으로 함께 분별하는 과정에 계속적으로 참여할 것을 약속한다.
- 5) 우리는 우리의 삶과 교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통해 그분의 뜻에 순종하기로 하나님과 약속한다.

그리고 우리가 “Sufficiency of Wisdom (더 이상 분별이 필요 없을 만큼 충분한 지혜를 얻었다는 생각)” 과 “Spiritual Surprise (성령님이 보여 주실 예상치 못한 분별의 결과에 대한 기대)” 라고 불렀던 것들이 성경해석에 있어서 피할 수 없는 현실 이라는 것도 발견하였다. 즉, 우리 자신과 변화하는 상황과

영적 훈련의 범위 안에서 불변하는 성경을 연결하면서, 교회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해석의 선택을 해야 한다. 이전에 말했던 것을 반복하기, 이전에 말했던 것을 보완하기, 그리고 이전에 말했던 것을 변경하기.

목적

이 두 번째 단계에서, 우리는 많은 주제 중에 하나인 ‘평화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올바르게 세우기 위해 분별하는 원리들 중에 몇 가지를 적용하기를 원한다. 이러한 과정이 많은 문제들을 교회 안에서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해 도움을 줄 수 있는 모델로서 기능을 할 것이라 믿는다.²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우리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지, 결코 우리가 ‘연습’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특정한 사례 연구에 대한 답을 구하는 것이 아님을 꼭 명심해 주기 바란다.

과정

절차는 네 부분(단계)으로 이루어진다.

- a) “시대적 표시들”을 분별하기 (눅12:54-56): 20 - 21세기의 캐나다 혹은 세계적인 환경에서 이 주제는 우리의 분별 레이더에 과거와는 다르게

2.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로서 우리는 그분의 평화와 정의의 사역에 동참한다. 예수님은 평화를 구축하고 정의를 따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는 부드러움의 영으로 이일을 수행하고 의를 위해서는 기꺼이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리스도의 제자들로서 우리는 전쟁을 준비하거나 참여하지 않고 군복무도 거부한다. 예수님께 힘을 주셨던 성령님께서서 우리로 하여금 원수를 사랑하고 복수 대신 용서를 선택하고 올바른 관계를 실천하고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믿음의 공동체에 의지하고 폭력 없이 악에 저항하도록 우리에게도 힘을 주신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폭력은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증거 한다. 이일은 교회 안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우리는 모든 종류의 폭력에 반대한다. 여기에는 국가 간의 전쟁, 인종과 계급간의 폭력, 어린이와 여성에 대한 학대, 남성과 여성간의 폭력, 낙태 그리고 사형이 포함된다.” 메노나이트 신앙 고백(1995), 22항, 145-146, KAP

잡힌다. 도대체 그 환경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이 주제에 관해서 추가 분별을 요구하는 상황적 압력들을 찾아 낼 수 있는가?

- b) 지금까지 “sufficient” 충분하게 여겨졌던 성경적 목소리 듣기: 우리는 평화 교회가 되는 것은 평화주의자의 교회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영감을 받고 확신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기까지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 왔는가?
- c) 이 충분함 “Sufficiency” 을 (일부 사람을 통해) 도전하는 성경적 목소리 듣기 우리가 성경해석을 할 때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성경의 목소리들이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간과했거나 사소하게 여겼던 성경적 목소리를 새롭게 깨닫게 하심 (spiritual surprise)을 통해 우리의 ‘충분함’ 을 깨치시기를 원하시는가?
- d) 우리가 발견한 것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도구들을 인식하고 그것에 헌신하기

평화(평화주의자)교회 되기: 21세기에 직면한 상황적(문맥적) 고려사항들
메노나이트들에게 있어서 평화교회가 되는 것이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 a. 잘만 사용되면 폭력이 평화 구축을 위한 유용한 도구가 될 수도 있다고 보는 많은 견해들을 반대한다.
- b. 국가와 세계의 군사화에 대면해서 평화주의 윤리를 유지한다.
- c. 잔인한 범죄와 종족말살 그리고 참혹한 학대의 피해자들을 직면할 때조차도 비폭력적 길의 실행 가능성과 타당성을 분명하게 표현한다.

우리 시대에 평화 교회의 정체성과 윤리를 유지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특별히 평화주의자들은 평화주의적 대응 방식을 뛰어넘는 보다 현실적인 방법들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악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회적, 도덕적, 인간적 책임들을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도록 도전을 받는다. 우리는

시대에 뒤쳐지고 현실에 맞지 않는, 단지 이념적인 평화주의 확신으로 간주되는 것들에 집착하지 않도록 도전을 받는다. 우리가 처한 현실에 비추어, 이제는 폭력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바꿀 때가 되었다고 사람들은 말한다. 다음은 그들이 제시하는 몇 가지 상황적 증거들이다:

- a) 히틀러와 나치주의에 의해 대변되는 자유와 생명에 대한 위협
- b) 공산주의, 악의 축, 불량국가, 중국, 북한, 이란, 쿠바,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리비아, 시리아, 미얀마, 짐바브웨 그리고 베르루시가 새롭게 맺은 군사적 협약 [New Axis Pact] 그리고 폭정의 전초기지들로 묘사되고 있는 위협들
- c) 주로 알카에다와 오사마 빈 라덴에 의해 상징되는 테러와 테러 단체들의 위협
- d) 인종말살과 내전의 악들 (다르프, 수단, 르완다, 콩고, 콜롬비아 등이 대표적인 실례들)
- e) 최악의 학대와 불공정으로 고통을 받아 왔던 수백만의 피난민들이 있는 난민 수용소의 참혹한 현실들
- f) 조직범죄, 폭력조직이 연관된 폭력 그리고 마약 범죄 조직의 참혹함
- g) 매춘, 성 매매, 아동군인, 장기매매 등 여러 목적들을 위한 인신매매의 악행들

사람들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사회적으로 책임감 있게 대응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데 이러한 주장은 평화(평화주의) 교회의 정체성에 도전이 된다. 그들이 주장하는 개입 전략들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a) 군사비 증강과 그에 따른 법제화, 군사 인력 모집 지원, 결과적으로는 군사개입 하기

- b) 불가피한 갈등 상황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 선제적인 행동/사업/전쟁
- c) 고문의 합법 (정당)화³
- d) 보호책임선언 (R2P) 지지⁴
- e) “정당한 전쟁”을 지지하기 위해 조심스럽게 잘 포장된 이론⁵
- f) 사형제도와 범죄에 대한 엄한 처벌에 대한 지지
- g) 무기 제조 및 교역에 대한 정당화

우리의 평화(평화주의자) 교회를 뒷받침해 주는 성경적 목소리들

평화주의 윤리가 성경적이며 평화주의는 필요하고 또 가능하다는 교회의 확신은 성경 해석의 역사로부터 출발한다. 그리고 그 확신은 다시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우리가 성경 안에 또 하나의 성경을 만들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우리는 성경이 그 안에 힘(power)에 대한 끊임이 없는 논쟁을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예: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힘의 적당한 역할과 종류). 우리는 성경 안에서 이러한 논쟁을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의 해석으로는) 인도함을 받기 위해 우리가 발견한 목소리는 다음과 같다. 하나님의 최초의 뜻과 궁극적인 뜻(계획)은 에덴동산과 새 예루살렘이 보여주는 것과 같이 세상의 온전한 화해라는 것이다. 더 나아가 창조물을 위해 하나님이 계획한 평화와 정의 그리고 화해의 열매는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 심겨진 씨앗들 안에 이미 존재하고 있음에 틀림없음을 우리는 믿게 되었다. 본래의 씨앗과 궁극적인 열매 사이에 존재하는 일치를 통해 우리는 힘의 올바른 사용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교훈을 얻게 되었다. 다음은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기까지 사용해온 몇 가지

-
- 3. 조지 부시와 버락 오바마가 만든 고문에 대한 매우 애매모호한 정의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 4. UN, 세계 교회 협의회, 캐나다 United Church 에 속한 대부분의 단체들이 R2P를 정식으로 채택했으며 R2P를 정식으로 채택하지 않은 단체들 중 상당수가 이들에 동조했을 것이다.
 - 5. 오바마 대통령이 2009년 12월 노르웨이에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며 했던 연설을 보라.

방법들이다.

- a) (다윗 왕이나 여호수아가 아니라) 고난의 종이 자신의 백성의 힘의 사 용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사야40-55)을 가장 잘 반영하는 가치체계라 고 말하는 이사야의 목소리를 따라 구약성경에 기록된 그 전통적인 거 록한 전쟁을 읽는다.
- b) 억압받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폭력적이고 혁명적인 활동에 참여하기보다는, 오히려 “잠잠하라”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보라” (신4:34;5:15; 대하20:17)고 제안하는 목소리를 통해서 출애굽기의 경험들을 읽는다.
- c) 예수님 중심의 시각으로 성경을 읽는다. 즉, 예수님의 삶, 가르침, 죽음 그리고 부활은 사회적, 정치적 그리고 윤리적 행동의 표준이다.
- d) 산상수훈과 같은 예수님의 중심 가르침에 집중한다. “너희는 …라 말하 는 것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네 원수를 사랑하라.”
- e) 하늘로부터 오는 목소리에 의해서 확인 된 것처럼, 하나님이 선호하는 방 법은 “왕의 신분과 역할, 고난 받는 종의 신분과 역할”이 공존하는 것임 을 명확하게 하는 행위로 “예수님의 세례와 위임”을 이해한다.
- f) 우리는 예수님이 광야에서 받으신 시험들은 다윗의 계보를 잇는 왕으로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가정이 틀렸음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한다. 더 강하게 말한다면, 열방을 통치하는 다윗과 같은 왕을 기대하는 것이 사탄 적이라고 이해한다. (마4:1-11)
- g) 로마서 12장에 기록된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삶을 사는 방법에 대한 길고 매우 상세한 도덕과 삶의 양식에 관한 가르침을 현재의 그리스도인 의 삶에 대한 권위 있는 표준의 가르침으로 받아들인다.
- h) “죽임 당한 어린 양”을 “소명을 가장 잘 정의한 이미지로 받아들이며 사 자의 능력(the Power of the Lion 계시된 하나님 말씀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 는 그리스도를 상징)”을 갖고 역사의 “두루마리를 펼칠 수 있는” 유일하

신 분으로 진지하게 받아들인다.

성경의 모든 해석은 성경 안에서 발견되는 특정 목소리들에 다소간의 가중치를 준다. 평화(평화주의자) 교회를 지지해온 성경해석은 구원을 약속하는 폭력에 대한 기독교의 지지를 정당화 하는, 즉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폭력에 참여함으로써 사회적 인간적 종교적 의무를 감당하도록 몰아가는데 사용되어 왔거나 사용될 수 있는 성경적 목소리들로부터 그 영향력을 제거해 왔다.

이러한 해석의 과정은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온전히 객관적일 수도 없고 중립적일 수도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동시에, 성경적 목소리를 인정하는 과정이 투명하게 드러나고 반박, 수정, 새로운 통찰에 대해 열려 있는 태도를 취하는 강점도 있다. 과정이 투명하다는 것은 우리가 덜 중요하게 취급한 성경적 목소리들을 숨기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은 우리가 덜 중요하게 취급한 성경적 목소리들의 몇 가지 예이다.

- a) 전쟁, 살인, 약탈, 그리고 복수에 대한 인간의 참여가 하나님으로부터 명령되었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언급하는 많은 성경 구절들
- b) 언뜻 보기에는, 그리스도인들이 물리적 충돌과 전쟁에 참여하도록 요구하는 정부의 합법적인 권위를 지지하는 듯이 보이는 로마서 13장에 대한 전통적인 해석
- c) 우리가 동시에 두 왕국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을 성경이 옹호한다는 이론을 지지하는 두 왕국에 대한 해석, 즉 우리의 개인적 삶 영역에서는 항상 하나님 나라의 윤리를 따라 살고, 사회적 정치적 삶의 영역에서는 세상 나라의 윤리를 따라 살아야 한다는 해석
- d) 두 왕국에 대한 견해와 아주 비슷한 것으로, 악한 적대자인 사탄의 불가항력적 힘과 싸울 때에는 평화주의 윤리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영적 전쟁에 대한 이원론적 이해

e) 그리스도인들이 폭력에 참여하도록 의무를 지우는 극단적인 천년왕국으로 역사가 최후를 향해 이동해 가는 것을 영적 전쟁으로 보는, 그렇기 때문에 비폭력 수단은 새로운 시대가 올 때까지 연기되어야 한다고 보는 다양한 천년왕국에 관한 성경해석

성경 안에 있는 목소리들을 이러한 방법으로 해석할 때, 성경은 “flat(모든 성경 구절이 동일하게 중요하다는 입장)”에 머물러 있을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성경의 아주 작은 부분도 성경의 전체적인 관점으로 읽어야 한다. 이것은 어떤 목소리들은 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고 어떤 것들은 덜 중요하게 여겨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바람직한 것이고 또한 그것은 계속적인 분별과 주의를 요구한다. 그러나 이것이 성경 말씀에 그 의미나 하나님의 영감이 부족한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각각의 목소리는 전체의 관점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우리가 각각의 목소리들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를 묻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데 어떠한 기여를 하는지 묻는 것이 중요하다. 교회에 의해서 기록한 것 [권위적 자료와 표준]으로 인정된 성경은 전체로서 정경을 의미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면, 성경의 모든 목소리들이 서로와 밀접한 관계 안에 있을 때 정경으로 권위를 갖는다. 교회는 성경의 각각의 목소리가 다른 목소리들로부터 격리되고, 성경 전체로부터 격리될 때 “기록한 성경 (holy scripture)”으로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 왔다. 정경에 대한 이러한 견해/이해는 분별을 더 복잡하게 만든다. 그러나 이것은 또한 성경이 단지 이념적인 목적을 위해 이용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한다.

이 글과 과정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의 교회로서 지속적으로 분별하는 활동에 참여할 것인가에 대한 하나의 예일 뿐이다.

평화(평화주자) 교회 정체성은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성경 밖의 많은 목소

리들에 의해 지지되어 왔다.

- a) 기독교 신앙이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기 전 1세기의 교회들은 평화주의의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다. 이 최초의 기독교인들을 통해 현재 평화 교회들은 평화주의가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의 진정한 의도였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 b) 평화 교회에 대한 이해는 16세기에 아나뱃티스트들이 나타나기 전에 수 세기에 걸쳐서 중요한 발생지들을 가지고 있는데, 대부분은 수도원 운동과 동방 교회들의 전통 안에서 평화 교회의 증거들을 찾아볼 수가 있다. 이러한 초기 기독교인들의 저서와 증언은 성경 해석에 있어서 오늘날 평화 교회에 영감을 주고 있다.
- c) 평화교회가 되기 위한 우리의 이해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16세기에 특별히 유럽에서 일어난 아나뱃티스트 운동에 의해서 초기 교회가 지향했던 평화교회가 교회의 소명으로 다시 회복되었다는 것이다. 아나뱃티스트들은 “신실함”을 예수님을 주님으로 철저히 따르는 것으로 이해했다. 그리고 그들은 비폭력과 예수님의 사랑 윤리를 그들의 교회 규범으로 확신했다. 평화교회의 가르침은 국가와 국가 교회에 심각한 도전으로 간주되었고, 그 결과로 평화교회를 따르는 사람들은 심한 박해를 받게 되었다.
- d) 평화주의적 삶을 지지했던 중요한 사람들(그들 모두가 기독교인들은 아니지만) 이 있다. 이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은 마하트마 간디, 마틴 루터 킹, 그리고 달라이 라마이다. 이들이 평화교회 지위에 영향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격려가 된다.

평화(평화주의자)교회 정체성에 도전하기 위해 사용되는 성경적 목소리들

위에 제시되었던 성경적 해석들은 보다 광범위한 교회 안에서는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실상, 그리스도인들이 개인적으로 평화주의

를 추구하는 경우는 있어도 교단적으로 평화교회로서의 분명한 입장을 취하는 경우는 거의 찾아 볼 수가 없다. 교회들이 “정당화 될 수 없는 폭력”에 대한 “선택적 평화주의”를 주장해 왔던 것이 지금까지의 현실이다. 예를 들면, 몇몇 교단은 핵전쟁은 일반적으로 폭력 사용을 정당화하기 위해 제시되는 기준에 철저히 반하기 때문에 결코 정당화 될 수 없다고 말한다.

이와 같은 선택적 평화주의 혹은 정당화될 수 있는 폭력에 대한 보다 보편적 이해 또한 기독교 세계 안에서는 성경을 기초로 주장되어왔다. 사실상, 일반적으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전제는 기독교 성경은 비평화주의 입장을 허락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지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른 이들은 평화주의가 예수님과 성경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방향이라는 것에는 기꺼이 동의하면서도, 그것을 온전하게 실천하는 것은 아직 현실적이지 않다고 할 것이다.

다음은 평화(평화주의자)교회 입장에 대한 재해석 요구를 뒷받침하기 위해 사용되는 성경적 목소리들의 일부이다.

- a) 학대와 폭력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성소”가 필요하다는 구약성경의 개념. 그 “성소”는 경찰/군대의 힘으로 보호되어야 한다는 가정.
- b) 로마서 13장은 보호의 목적을 위해 권력을 행사하도록 국가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 받은 의무를 지적하고 있고, 그 임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권위에 복종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의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것은 군사력을 통한 치명적 폭력의 사용을 포함할 수도 있다. 로마서 13장에 대한 이러한 해석의 중요성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 c)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그리고 억압의 피해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헌신이 그러한 사람들의 유익과 복지를 회복하기 위해 폭력을 사용하는 것을 정당화 하는 수단으로 사용된다. 어떤 이들은 성전에서 예수님이 돈 바꾸는 사람들의 탁자를 뒤엎은 것을 두고 가해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분노가 어떻게 거룩한 분노가 되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암시라고 말한다. 그 거

룩한 분노는 교회가 또한 선택하는 극단적 (그리고 폭력적이 될 수 있는) 수단들을 정당화 한다.

- d) 미래에 초점을 둔 종말론이 기독교 성경 전체에서 언급 되고 있다는 사실로 인하여 평화주의 같은 윤리적인 것들 또한 모든 것이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그 미래의 시간까지 연기될 수 있다고 믿는다. 같은 맥락에서, 오늘날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한 윤리적인 것들은 이 세상에서 실천하며 살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고 제안한다.
- e) “구속 윤리 redemption ethics”로부터 “창조 윤리 creation ethics”를 분리하는 것 또한 일반적이 되었다. 이것은 앞에서 언급한 두 왕국 이론과 아주 비슷하다. 즉, 창조에 필요한 윤리(creation ethics: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자연의 법칙)가 있고 구속에 필요한 윤리(redemption ethics: 미래에 임할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그리스도의 법칙)가 있다. 구원받은 사람들로써 현재의 창조 안에서 살아가는 경우 이것은 우리가 장소에 따라 거기에 맞는 윤리를 골라서 실천하며 산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이것은 구속 윤리가 현재 세계에서는 비현실적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 f) R2P에 대해 발표한 세계 교회 의회 성명서는 구호를 목적으로 하는 군사적 개입을 신학적으로 정당화하는 좋은 예이다: “세계는 만유의 창조자 되시는 하나님안에서 한 가족이기에 약자들을 보호하는 책임은… 전 교회의 책임이다.”⁶

6. “카톨릭 교회와 메노나이트 세계 협의회 간의 국제 협의에 관한 보고서: 피스메이커가 되기 위한 공조(1998-2003)”를 보면 평화주의 입장에 대한 메노나이트의 모호한 태도를 볼 수 있다. “교회와 사회” 그리고 “비폭력과 정당한 전쟁”에 관한 메노나이트의 입장을 요약해 보면 메노나이트들은 국가를 불신하는 경향이 있고 폭력의 사용과 권력의 부패 가능성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정부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비판적인 경향이 있다 (186 항). 그러면서 또한 “갈등 상황에서는… 카톨릭과 일부 메노나이트들은 모든 비폭력적 수단이 실패할 경우 국가 혹은 국제 기구가 선량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무력을 사용할 수도 있다고 인정한다. 그러나 그리스도인 들은 이러한 행위에 참여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메노나이트 들의 입장이다” (187항). 이러한 놀라운 확인은 Schleithem 고백(1527)에서 참조한 몇가지 중 하나에 기초한 것이며 주로 인용된 메노나이트 신앙 고백(1995)에 기초한 것은 전혀 아니다. 흥미롭게도 그 보고서는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메노

창문으로서의 성경과 거울로서의 성경

지금까지의 단계들은 분별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 매우 신중하게 문맥을 살피고 성경적 의미를 연구함으로써, 우리는 보다 온전하게 그들 사이의 역동적이고 상호적인 관계를 이해하게 된다.

성경은 우리에게 창문의 역할을 한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신실하게 살려고 몸부림쳤던 다른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고 그들로부터 배울 수 있다. 비록 그들이 다른 시간, 다른 장소에서 살았고 지금 당장 우리와는 직접인 관계가 없는 주제를 다루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삶을 통해 우리는 배울 수 있다. 예를 들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는...,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영적 놀라움 spiritual surprise’ 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다윗과 같은 왕이 다시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에 대한 거룩한 열망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계시되었던 성찰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지는 것, 기꺼이 그들을 위해 고통을 받고 심지어 죽을 수조차 있는 것이 치유와 구원의 진정한 의미라는 사상)보다 우선한다고 가정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지금 현재 우리가 속해 있는 기독교와 세상 가운데서도 여전히 영적 놀라움이 된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그 역사(상황) 속에 던져진 이 영적 놀라움은 역사 속에서 메노나이트들에게는 “충분성”에 대한 논쟁이 되어 왔다.

성경은 또한 우리를 위해 거울의 역할을 한다.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공간과 시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의 삶을 통해 그곳에 비친 신실함을 위해 애쓰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우리는 우리 나

나이트 들은 무저항을 원칙으로 하며 여기에는 예외가 없다. 반면 카톨릭 들은 무저항을 지지하되 예외를 인정한다” (188항).

이러한 모호한 입장에 더해서 “신앙 고백”을 권위적으로 - 그러나 융통성있게 - 사용하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신앙 고백”은 현재 우리의 ‘메노나이트 신앙 고백’과 ‘Schleitheim 고백’을 말한다 (비록 이 둘이 동일한 문제들을 매우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긴 하지만, 여기에 더해서 보고서 그 자체도(‘Schleitheim 고백’과 ‘메노나이트 신앙 고백’ 사이에서 애매 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메노나이트의 공식적 고백문으로 간주되는 경우들이 있다.

름대로 “치명적인 폭력이 자유와 구원의 씨앗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주류 문화/정치/ 종교적 신화의 매력적인 약속과 저항할 수 없는 힘을 경험한다. 이 유혹적인 약속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타당하다고 여겨 질 때 우리는 여기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고민하게 된다.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이해한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가? 과정을 따라 살아가기

지금까지 살펴본 분별의 단계들이 분별을 위해 필요한 모든 단계는 아니지만 매우 중요한 단계들이다. 우리의 고백 가운데 충분하다고 여겼던 것들에 대한 재검토 압력이 있는데 이제 우리는 그 이유를 보다 잘 이해한다. 우리는 이 압력이 덜 신실하기 위한 욕망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보다 더 신실해 질 수 있고, 신실해 져야 한다는 진정한 확신에서 나왔다는 것을 안다. 우리는 그 압력의 동기가 복음을 훼손하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더 충만하게 복음을 살아낼까 하는 인식 안에서 성장하려는 바람에서 온 것임을 안다. 성경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성경 안에 존재하는 격정적인 논쟁에 주의를 기울인 결과임을 우리는 안다.

이 분별은 보다 깊은 묵상과 기도로 우리를 인도할 것이다.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사건의 중요성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본다. 서둘러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다. 결국에는, 우리는 교회의 삶 가운데 분별되어져 왔고 그리고 우리에게 충분한 단단한 기초 위에 서있게 된다. 교회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우리가 처한 상황 가운데 우리를 더 큰 진리로 인도하시는 일 - 이것은 우리가 성경적 진리에 얼마만큼 빠져 있느냐에 달려 있다)만이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왔던 충분함을 수정 혹은 보완 할 수 있다. 이것은 현 상태에 안주하거나 고집스럽게 자기를 보호하자는 뜻이 아니라 사람들 안에서 사람들의 신실함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하나님의 전략적인 계획을 전적으로 신뢰하자는 뜻이다. 콜롬비아에 있는 우리의 친구들은 “이것은 매우 급한 일이야. 그래서 우

리는 천천히 가야해.”라고 말하곤 했다. 이것은 지혜로운 충고이다.

우리의 관심은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분별하는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BFC 1과에서 교회는 분별의 과정을 통해 반드시 다음 세가지 중 한가지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 했다: 반복하기, 보완하기 혹은 수정하기.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이 분별의 과정을 통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가 지금까지 말해왔던 것을 반복하는 것에 자신감과 기쁨이 있는가? 보완을 제안할 만큼 충분히 듣고 보았는가? 우리는 성령님과 우리의 상황 그리고 성경을 통해 수정이 필요하다는 확신을 받았는가? 우리는 함께 다음 단계들을 위한 기준들을 만들어야만 한다. 지금은, 여기까지이다.

그러나 여기에 잠시 멈춘다는 것이 의제를 포기한다는 뜻은 아니다. 분별의 영은 계속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 a) 시간 갖기: 개인적 시간과 몸으로서 교회의 시간. 우리 모두는 좋은 분별로 나아가기 위한 우리의 노력 안에서 시간이 갖는 중요성을 안다.
- b) 기도: 홀로 그리고 함께. 중언 부언하지 않기, 다른 사람들 앞에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 c) 두려움이 아니라 신실함에 집중: 이것은 용기와 투명성을 요구한다. 무엇보다도 우리들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신뢰하는 것을 요구한다.
- d) 이 분별의 과정을 예배의 따뜻함으로 감싸기: 공동체 예배의 두가지 중요한 열쇠 항상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과 하나님의 초월성에 기초한 계시된 지혜가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것
- e) 계속해서 성경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홀로 그리고 함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성경의 목소리를 이해하라. 그 목소리들을 권위적인 성경의 전체의 빛을 통해서 특별히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 죽음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해석하라.

- f) 그 목소리들이 그들의 시간으로부터 이야기 하도록 허락하기: 성경의 창문을 통해 봄으로서, 우리는 충분함과 놀라움의 역동성을 분명히 발견할 것이며 그를 통해 가르침을 얻을 것이다.
- g) 그 목소리들이 우리의 시간에 이야기 하도록 허락하기: 성경이라는 거울을 통해 우리의 상황을 비추어 볼때 우리는 우리가 이해하는 것의 충분함에 놀랄 수도 있고, 성경 안에서 분별한 충분함에 기초한 새로움에 의해 놀랄 수도 있다.
- h) 우리의 상황으로부터 계속해서 그 목소리들을 듣기: 교회내부의 목소리는 매우 중요한 우선순위를 가진다. 이들 중에는 변화의 필요성을 감지하는 목소리도 있을 것이고 구성원의 특성을 결정짓는 충분함의 사상에 기여하는 목소리들도 있을 것이다. 교회로서, 우리는 또한 계속해서 외부로부터 들려오는 목소리들에 주의를 기울인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는 교회의 삶에 제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 i) 겸손과 고백의 덕을 함양하기: 교회 역사가 그 둘의 필요성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함께 이 분별의 임무를 기쁨과 신뢰로 감당하자. 이것은 우리의 임무이다. 우리 함께: 말씀 안에서 기뻐하고 성경의 전문가가 되고 도전의 즐거움을 품에 안고 그 여정을 맘껏 즐기자. 우리는 아직 완전한 답을 찾지 못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사실상 우리는 희미한 유리를 통해서만 볼것이다.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우리는 영원히 충분함과 영적 놀람의 거룩한 긴장 속에서 살것이다. 하나님은 여전히 변덕스럽지 않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용서를 연장해 가신다. 교회가 실패해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식탁으로 초청하신다. 이러한 현실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승인하신 신실함을 분별하기로 헌신한다.

존 하워드 요더 - 기독교 평화학

최근 한국에 소개되기 시작한 메노나이트 신학자 존 하워드 요더에 대해 연재합니다. 상황에 따라 변동의 여지가 있으나, 가능한 다음의 순서를 따라 연재글을 신고자 합니다.

1. 신학적 유산: 존 하워드 요더, 글을 시작하며 / 2. 존 하워드 요더-추도사를 통해 본 그의 인생 / 3. 존 하워드 요더-예수의 정치학 / 4. 존 하워드 요더-기독교 윤리학 / **5. 존 하워드 요더-평화학** / 6. 존 하워드 요더-그리스도론 / 7. 존 하워드 요더-교회론 / 8. 존 하워드 요더-그의 신학과 저술 / 9. 존 하워드 요더-죽음과 그 이후 / 10. 존 하워드 요더-교회와 상호책임 속의 존 하워드 요더

이 글은 존 하워드 요더와 그의 신학에 대한 연재 중 다섯 번째 글이다. 2013년 메노미디어 MennoMedia[미국과 캐나다 메노나이트 교회 출판사]는 요더의 성적 탈선에 대한 이슈와 관련하여 그의 책 출판을 중단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하였다. 오랜 숙고 끝에 요더가 남긴 유산의 “복합적인 긴장들”을 독자들이 연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그 방안으로 앞으로 발행되는 모든 책에 그의 성적 탈선 사실을 밝힌 서문을 신기로 결정하였다. 이 결정 후 다음과 같은 서문과 함께 요더의 책이 발간되고 있다. 2015년 1월 MQR은 약 1년 반 넘는 기간 동안 미국 메노나이트, AMBS, 지방회 및 그가 속해 있던 교회가 고민했던 내용을 정리하여 실었다.¹ 2015년 3월 22일 AMBS의 Sermon on the Mount 채플에서 피해여성들과 함께 슬퍼하고 죄용서를 구하는 예



김복기
(캐나다메노나이트선교사)

1. Mennonite Quarterly Review 2015년 1월호를 보라.

배를 드렸다.² 그리고 2015년 6월 30일부터 7월 5일까지 캔자스 시티에서 열린 미국 메노나이트 교회 총회(연례회)에서는 요더의 성적 탈선에 대한 이슈와 관련한 그간의 일들을 보고하고 다룰 예정이다. 지난 호에 이어, 이 요더 연재 글에는 메노미디어가 발표한 서문을 번역하여 실었다.

존 하워드 요더(1927-1997)는 20세기에 가장 잘 알려진 메노나이트 신학자이다. 기독교 윤리학에 있어 그의 업적은 메노나이트 교회 전통 밖에 있는 독자들에게 아나뱃티스트운동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지만, 요더는 오랫동안 여성들을 성추행하고 학대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다.

헤럴드출판사는 화해로 부름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에 의해 빚어진 일과 관련된 복잡한 긴장이 있음을 인정하지만, 여전히 그가 권력과 지위를 사용하여 다른 사람들을 학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우리는 요더와 그의 업적에 대해 글을 쓰는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 또한, 우리는 요더가 이러한 성적 탈선행위의 장본인이었음을 독자들이 알아야 한다고 믿고 있다.

요더의 글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복잡한 이슈들을 모른 채 하지 않으며, 개인, 학자, 교회의 유산으로서 그의 업적을 보다 온전한 맥락 속에서 이해하고, 평가하고, 씨름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출판한다.³

2. <https://www.ambs.edu/news-events/reunion-listening-confessing.cfm> 2013년 7월 25일 AMBS 총장의 “정리되지 않은 일Unfinished business”에 대한 입장 표명이 있은 후, AMBS는 요더에 의해 피해를 입은 여성들의 아픔을 인정하는 공식적 예배와 의식을 준비하였다. 2015년 3월 21,22일 양일간, AMBS와 피해여성들을 포함한 이전의 리더, 그리고 현재 재직 중인 교직원, 학생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서 피해여성들의 아픔과 슬픔을 애도하고, 피해 여성들 앞에서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새로운 언약으로 나아가기 위한 약속의 시간을 가졌다. 또한 캠퍼스 건물 안, 요더에 의해 성추행이 행해진 공간을 돌면서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가졌다. 자세한 기사는 <http://mennoworld.org/2015/03/23/news/ambs-on-abuse-we-failed-you/> 를 참고하라.

3. 메노미디어 및 요더의 책에 실린 원문의 번역.

시골 들판을 거니노라면 무수히 많은 거미집을 쉽게 만날 수 있다. 밤새 쳐놓은 거미줄 위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이슬방울들이 햇살을 받아 하얗게 빛을 드러낼 때면, 그 아름다움에 넋이 나간다. 거미가 자기 집에서 노니는 모습을 보면 미물 속에 깃든 창조주의 숨결을 잠시나마 읽을 수 있다. 더 나아가 자연 속에 숨겨져 있는 기하학과 수학적 원리에 감탄하며 평화로운 느낌마저 마주할 때가 있다. 문득 짓궂은 장난기가 발동하여 거미를 놀라게 하려고 거미줄을 당기면, 쉽게 끊어지지 않고 주~욱 늘어지는 거미줄을 보기도 한다.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하나로 이어져 서로 연동되는 멋진 광경이 펼쳐지기도 한다.

요더라는 신학자를 연구하다보면 마치 거미줄의 매력처럼 그가 짜놓은 신학적 주제의 오밀조밀한 그물망에 매료된다. 가까이 가서 거미줄을 잡아 당겨보면, 전체 거미줄이 하나로 연결되어 마디마디, 구석구석이 한꺼번에 반응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 요더의 신학은 마치 거미줄 마냥 어디서부터 시작하든 여러 주제가 서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 느낌을 저버릴 수 없다. 무심코 윤리를 이야기하다보면, 교회론이 나오고, 교회론이란 줄을 잡아당겨 보면, 그리스도론이 나오는 식이다. 그리스도론을 연구하다보니, 이는 다시 평화로 연결되고, 평화학을 다루다보면 공공의 윤리학이 등장하는 형국이다. 윤리학은 개인의 책임뿐 아니라 사회적 책임인 제자도로 연결되고, 이 제자도는 공동체성을 담보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언약을 기초로 형성한 공동체는 다시금 화해와 평화의 윤리로 연결된다. 이렇게 요더의 신학과 그 신학적 주제는 아름다운 거미줄마냥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렇게 거미처럼 요더는 아름다운 실을 짓고 자기 집을 만들고 그 자신이 만들어 놓은 신학이라는 거미집을 또 다른 거미집과 연동시켜 놓았다. 그 거미집은 20세기 기독교 신학자들과 연결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요더의 천재성과 인간의 욕망에 근거한 저 위험한 “성적 실험”으로 말미암아 한쪽 부분의 거미줄이 훼손되어 있지만, 사라진 거미가 남겨놓은 그 거미집은

여전히 아름다운 매력을 발산하고 있다.

지난 호에 이미 밝힌 바 있지만, 요더의 평화학은 아나뱃티스트-메노나이트라는 환경 아래 이미 그 출발선이 남다르다. 16세기 태동과 더불어 평화의 길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폭력의 길을 따를 것인가 치열한 고민 끝에 아나뱃티스트-메노나이트는 평화의 길을 따르며 살아왔다. 아나뱃티스트들은 초기부터 성경의 가르침과 현실의 상황 속에서 스태블러(지팡이를 지닌 사람들)와 슈버틀러(검을 지닌 사람들)로 나뉘어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평화의 사람이어야 한다는 성경의 가르침 아래 아나뱃티스트들은 양떼를 치며 신앙여정에 필요한 지팡이를 지닌 사람이어야 한다는 뜻으로 스스로를 스태블러라 하였다. 한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베드로도 검을 지니고 있었으며, 필요하다면 검으로 스스로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한 사람들을 슈버틀러라고 하였다.⁴

16세기 격변의 시기에 수많은 아나뱃티스트 리더들은 신학적 작업을 마다하지 않았다. 실제 상황 속에서 농민전쟁과 뮌스터 사건을 경험한 후, 아나뱃티스트-메노나이트는 평화의 길을 걷게 되었다. 그 이후 아나뱃티스트-메노나이트들은 모진 박해를 견뎌내며, 평화를 찾아나서는 여정을 걸어왔다. 제3의 세례라 일컬어지는 피의 세례를 기꺼이 감내하며 신앙을 지켜냈고, 살던 곳을 떠나 정처 없는 유랑의 세월을 보내야 했다. 지금은 우리가 그들을 도망자, 은둔자, 세속을 떠난 사람들이라 쉽게 부르지만, 참수형, 화형, 수장, 십자가형 등 모진 핍박의 상황을 온 몸으로 받아낸 사람들을 그렇게 아무런 생각 없이 불러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앙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리스도 제자의 모습으로 그 때나 지금이나 깊게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 그들이 보여준 그리스도의 주되심

4. 코넬리우스 덕, 김복기 옮김, 아나뱃티스트 역사, 대장간, 4장

에 대한 삶의 고백, 평화의 왕으로 오신 어린양에 대한 전적인 의지, 말씀 분변과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무조건적 복종 (Gelassenheit),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제자도, 십자가와 고난의 여정은 비폭력을 넘어 무저항이라는 어마어마한 역사 드라마를 일구어 냈다. 박해로 인해 더 이상 발붙일 곳이 없던 이들은 유럽 내에서 박해가 덜한 모라비아와 같은 평화의 도시를 찾아 떠나는 순례자의 삶을 살았다. 뿐만 아니라, 유럽에 더 이상 머물 곳이 없을 때는 프러시아 지역으로, 미국과 캐나다로 더 나아가 남미에 이르기까지 약 400여 년간의 끊임없는 순례의 여정을 걸었다. 그들이 보여준 이주의 여정은 곧 평화의 여정이기도 했다.

아나뱃티스트-메노나이트는 16세기부터 평화의 신학을 잘 발전시켜왔다. 수 천 명의 순교자를 선조로 둔, 아나뱃티스트들은 전쟁을 거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삶 속의 폭력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할 수 있는 한 그리스도의 비폭력과 무저항의 원리를 실천하고자 노력해 왔다. 전쟁과 박해의 시기뿐만 아니라, 종교적 자유를 누리고 있는 현재에도 평화교회의 맥을 이어가고 있다. 이 평화교회들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뿐 아니라, 사랑과 박애의 정신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적극 동참하였다. 지금은 우리에게 익숙한 병역 대체 복무 등은 폭력의 역사 속에서 아름답게 열매를 맺은 평화신학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⁵ “종교적 가르침과 신념”이라는 양심적 이유로 누구든 모든 형태의 군사임무를 반대할 수 있으며 “징집임무는 그들에게 시민 감독 하에서 국가의 중요한 일을 할당”할 수 있도록 제안한 결과물이기도 했다.⁶

이전에 이야기 한 것처럼 요더의 평화학 역시 그의 아나뱃티스트라는 비옥한 토양과 아나뱃티스트의 신학적 재평가가 이루어진 20세기의 신학 동

5. 가이 허쉬버거, 최봉기 옮김, 전쟁, 평화, 무저항, 대장간, 참고

6. 가이 허쉬버거, 최봉기 옮김, 전쟁, 평화, 무저항, 대장간, 183.

향과 무관하지 않다. 특별히 이전 글들에서 언급한 가이 허쉬버거의 평화에 대한 연구 및 업적으로부터 상당한 영향을 받았다. 요더의 기독교 윤리학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평화학은 단순히 평화학으로만 존재하지 않는다. 기독교 윤리학의 한 분과로서 자리하기도 하지만, 요더에게 평화는 거대한 신학적 담론이자, 하나님 나라의 패러다임이었다. 그러기에 그냥 알면 좋고 몰라도 되는 그런 학문의 한 지류로 여길 대상이 아니라, 기독교의 본질, 신앙의 본질, 교회의 본질과 맞닿아 있다.

요더의 평화담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저 유명한 『예수의 정치학』의 8장 그리스도와 권세 그리고 12장 어린양의 전쟁을 필독해야 할 것이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여러 가치들, 구조들, 종교구조, 지식구조, 도덕구조와 정치구조를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구조 없이 살아갈 수 없으며, 역설적으로 구조에 종속되어 살아가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또한 역사의 의미를 결정하는 것은 칼이나, 무력이나, 폭력의 결정체인 전쟁이 아니라 “십자가”이며, 무자비한 힘이 아니라 고난을 전제로 할 때 온전히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요더에게 평화의 핵심은 당연히 정치적인 이슈이며, 사회적 이슈였다. 그리고 거기에 예수의 주권과 죽임당한 어린양이 한 가운데 자리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요더에게 폭력이란 어떤 이유로든 거부하는 것이 최선이었다. 정당한 방법을 통해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때, 어떻게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인정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정당한 목적이라도 기꺼이 포기하여 고난받는 모습이 어린양의 승리였다.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는 무기력하다. 인간적으로 아무런 결과를 기대할 수 없다. 다만 한 가지 할 수 있는 일이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일 뿐이다. 그래서 요더의 평화학은 결과에 관심이 있지 않다. 평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당위성도 없다. 궁극적인 평화는 하나님을 믿는 “신실함”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⁷

『예수의 정치학』이 성서를 기초한 설명이었다면, 『당신이라면』과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보다 현실적인 주제를 학문적으로 분류하고 설명함으로써 평화학을 심층분석한 책이다. 우선 『당신이라면』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괴롭혔던 법정 질문을 분석하며, 잘못된 전제의 규명과 선택 가능한 대안들을 보여준다. 그리고 후반부에서 역사속의 평화주의자들이 걸어온 구체적인 사례들을 소개하고 있다. 요더는 책의 서두에서 “만약 한 범죄자가 총을 꺼내서 당신의 아내 또는 딸, 여동생, 어머니 등을 죽이겠다고 협박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⁸라는 전쟁과 평화에 관련된 가장 일반적인 질문에 답해야 할 필요성을 밝히고 있다. 이 질문은 사실 전쟁은 잘못된 것이라고 믿고 전쟁참여를 거부하는 평화주의자들의 생각과 신념을 무너뜨리기 위한 결정적인 질문이기도 하다. 요더는 이 질문에 대해 해명하기로 결단하고 이 책을 썼다.

늘 그렇듯이 요더는 항상 질문에 보이지 않는 숨은 전제를 건드린다. 질문이 의도하는 바를 파악하고 사건을 방어해야만 하는 입장에서 쉽게 왜곡되는 감정을 건드린다. 그리고 기존의 법질서에서 질문자(법정재판관)로 선 사람과 비폭력 무저항의 희생양이 될 답변자의 입장을 모두 분석한다. 그렇게 질문의 배후에 서있는 폭력의 구조와 관련 인물들에게 존재하는 가정을 살펴본 후, 가능한 선택사항들을 총 일곱 가지로 나누어 살핀다. 2부에서 진행되는 또 다른 방식은 이야기와 더불어 전개된다. 이 책을 통해 우리는 폭력 외에는 달리 방도가 없다는 사람들에게 거꾸로 물어볼 필요가 있다. 당신이라면? 이 여러 가지 다양한 가능성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할 수 있는가?라고 말이다.

7. 존 하워드 요더, 『예수의 정치학』, 8장

8. 존 하워드 요더, 임형권 옮김, 『당신이라면?』, 대장간, 2011, 31.

한편, 지난 세기 요더만큼 기독교 평화학을 철저히 연구한 이가 드물다고 할 정도로 그의 탁월한 연구를 일목요연하게 보여준 책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이 책은 하나의 평화유형론typology으로 전 세계에 존재하는 서로 다른 평화이론을 29개의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1971년 초판 발행 후, 1976년과 1992년에 개정판이 출간되었는데, 1992년 판에는 초판의 17개 유형에 11개의 새로운 유형을 추가하였다. 요더는 평화유형론을 언급함에 있어서, 일정한 패턴 아래 글을 전개하고 있다.

기독교 사해동포 평화주의, 솔직한 사례 연구를 기초로 한 평화주의 (예외적 사례와 그 평가방법), 절대적인 원리를 기초로 한 평화주의, 실용적 대안정치를 추구하는 평화주의 (정치적 평화주의), 비폭력적 사회 변화를 추구하는 평화주의, 예언자적 저항 평화주의, 선포하는 평화주의 (프로그램과 실용성), 순수한 유토피아적 평화주의, 고상한 소수자들의 평화주의, 절대적 명령으로서의 평화주의, 절대적 양심으로서의 평화주의, 구속적 인물중심의 평화주의, 종파적 법에 기초한 평화주의, 문화적 고립으로서의 평화주의, 일관성을 가진 비순응자들의 평화주의, “제2의 바림”으로서 메노나이트의 비평화주의적 무저항, 메시아적 공동체에 기반으로 한 평화주의 등으로 평화주의를 분류하였다.⁹

이렇게 분류한 유형들을 설명함에 있어 우선은 모든 사람들이 알만한 공리적 설명을 시도하고, 이 평화주의가 갖고 있는 약점을 소개한다. 그 후 이러한 약점에도 불구하고, 이 평화 유형이 갖는 탁월성은 무엇이며, 역사적 사례를 들어가며 이 유형이 갖는 의미를 설명한다. 끝으로 이 유형이 가져야 할 나름대로의 제안 사항으로 결론을 짓는다. 즉 이 책은 공리-약점-그

9. John Howard Yoder, *Nevertheless*, Herald Press, 1992. 여기에 언급한 평화주의 유형들은 그의 책 *Nevertheless*의 목차를 번역한 것이다. 전체 유형을 일관한 후, 어떻게 기독교 평화주의를 이해하고 배우기 원하는 독자라면 20장을 통해 큰 유익을 얻을 것이다.

림에도 불구하고-결론이라는 패턴 아래 분류 가능한 기독교 평화주의의 이론과 실재를 독자들에게 선물하고 있다. 이 책은 우리에게 동일한 평화를 주창하면서도 서로의 입장이 얼마나 다를 수 있는가를 주지시켜준다. 기독교 평화주의 안에 이렇게도 많은 부류들이 있구나 하는 깨달음을 준다. 이 책은 기독교 평화주의에 대해 알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일종의 평화주의 목록 명세서로 다가올 수 있다. 그러나 더 소중한 것은 이러한 평화주의를 일견하고 말 것이 아니라, 기독교 평화주의를 서로 비교하여 보고, 각각의 강점과 약점을 하나로 엮어 보다 나은 평화주의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각 교회의 전통과 자신이 갖고 있는 평화주의 입장을 중심으로 다른 입장의 평화주의와 대화를 할 때, 스스로를 정당화하는 대신 진정한 평화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아마도 이것이 평화주의자들에게 이 책을 선물한 요더의 의도가 아닐까 싶다.

여러 책과 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요더는 4세기 이후로 기독교 역사에 가장 큰 기둥으로 자리하고 있는 “정의로운 전쟁”에 대해 수많은 글과 논문을 남겼다.¹⁰ 이렇게 한 이유는 일반적으로 정의로운 전쟁을 잘못되었다고 규정하고, 반대하기 보다는 좀 더 진지하게 정의로운 전쟁에 대해 논의함으로써 잘못된 실상과 오해를 제대로 다루려는 그의 분명한 의도가 있다. 요더가 유달리 정의로운 전쟁이론에 대해 많은 글을 쓴 것은 검증되지 않은 이론이 암브로우스에 의해 제시되고 아우구스티누스에 의해 발전된 이래 기독교 역사는 물론 인류 역사에 최악의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정의로운 전쟁은 그리스도인의 전쟁윤리로서 암브로우스에 의해 제시되고 아우구스티누스가 발전시킨 이론이다. 후에 이 정의로운 전쟁론은 십자군 전쟁으로 연결되고, 결국 기독교의 선교기관과 기독교

10. John Howard Yoder, *The moral responsibility to refuse to serve in unjust war: the movement 1968-75 and its prehistory*, Working Paper Series 3:WP:9, Nortre Dame University, 1983과 JHY, *The Just War and the Gospel*, 1969 참고.

제국주의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북 이탈리아의 집정관이었던 암브로우스는 개인적으로 군역 거부를 호의적으로 보지 않았다. 그는 가능한 그리스도인들을 군에 동원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그리스도께 승리를 달라고 기도한 인물이다. 이로 인해 기독교 평화주의가 개인적 영역과 성직자들의 세상에 굳건히 자리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가 처음 주창한 전쟁의 기본 개념은 1) 전쟁행위가 정당해야 한다는 것과 2) 수도사와 성직자들은 전쟁행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¹¹는 이론이었다. 이것이 아우구스티누스를 통해 보다 구체화되었고, 소위 말하는 제국과 황제를 위한 신학으로 정립되었다. 로날드 베인톤이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아우구스티누스의 정의로운 전쟁을 위한 규약을 살펴보자. 1) 전쟁은 그 목적, 즉 평화의 회복이라는 목적에 부합해야 한다. 2) 권리 침해에 대한 복수로서 시행되는 전쟁은 정당하다. 3) 전쟁은 그 전쟁의 참여자에게도 정당해야 한다. 즉 전쟁은 통치자의 권위 하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4) 전쟁 행위도 정당해야 한다. 이유 없는 폭력이나 성전모독, 약탈, 대학살, 방화 등은 금지되어야 한다. 기습은 허락되지만, 복수나 잔학행위, 보복적 강탈은 배제되어야 한다. 5) 교회로 피난 한 사람들은 살려주어야 한다. 6) 종교인, 일반인, 성직자, 수도사 등은 절대로 전쟁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¹²

이미 여러 윤리학자들에 의해 제기되었지만, 이러한 항목에는 저마다 질문이 뒤따른다. 과연 정의로운 전쟁이란 어떤 전쟁이며, 누가 정의와 정당성을 검증할 것인가? 사람을 죽이는 전쟁에 어떤 의미로 정당성을 부여할 것인가? 한참을 양보하더라도, 실제로 이러한 항목이 제대로 지켜졌는가? 과연 역사 속에서 이러한 정의로운 전쟁이 존재한 적이 있었는가? 등이 그

11. 로날드 베인톤, 채수일 역, 전쟁 평화 기독교, 대한기독교출판사, 1981, 121.

12. 로날드 베인톤, 채수일 역, 전쟁 평화 기독교, 대한기독교출판사, 1981, 129.

리한 질문의 예이다.

이런 면에서 요더의 신학적 설명은 성서적 평화주의로 접근한다. 즉 제국과 황제라는 기독교 국가주의 현실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평화를 선포한다. 이 말은 요더가 정의로운 전쟁이론을 철저하게 연구하였지만, 정의로운 전쟁론에는 평화주의로서 그리스도인이 추구할 타협점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하다. 정의로운 전쟁론에 대한 명백한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요더는 30-40년간 정의로운 전쟁을 주제로 중단 없는 긴 대화를 멈추지 않았다. 라인홀드 니버를 비롯한 개신교 신학자들의 입장은 물론, 가톨릭 신학자들과 5리를 가자고 한 제의에 대해 가까이 10리를 동행하며 대화했다. 대부분의 대화가 그렇듯이, 대화의 결과가 반드시 같은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더가 정의로운 전쟁이론을 분석하고 가장 명확하게 설명하려 들었던 이유는 지난 기독교 역사 속에서 가장 뿌리 깊고 널리 회자되었던 전쟁이론이기 때문이다. 물론 정의로운 전쟁에 대한 그의 논지는 다음과 같이 분명히 정의될 수 있다. 1) 정당한 전쟁론은 4세기에 입안된 이래, 한 번도 제대로 실천된 적이 없다. 아우구스티누스와 암브로우스의 신학적 설명은 이미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기독교 공인에 토대가 있기에 그 정당성에 있어 시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소위 말해 누구에게 정당한 전쟁이란 말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명쾌한 답을 줄 수 없다. 2) 정의로운 전쟁이론은 제대로 정의되지 않은 채, 그리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모른 채, 현상학적으로, 이데올로기에 의해, 그리고 힘의 불균형에 의해 치러져 왔다. 3) 이 세상에서 진정 정당했던 전쟁이 있었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에 대한 해답이 없다. 4) 정의로운 전쟁 이론의 기본 사항을 제대로 지킨 적도 없다는 것이 그의 논지다.

이러한 분명한 논지아래, 요더는 자신의 아나뱃티스트-메노나이트 교회 전통아래 기독교인이 추구해야할 평화신학을 정리해 놓았다. 이전의 여러

글들에 요더의 평화신학이 잘 드러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더는 별도의 작업을 통해 자신의 평화 신학을 정리하였다. 그의 사후에 출간된 『어린양의 전쟁』과 『비폭력 평화주의의 역사』는 요더의 평화학을 정리한 책이다. 사실 이 두 책은 쌍둥이처럼 닮아있다. 『어린양의 전쟁』은 2009년 그렌 스타센, 마크 티센 네이션, 매트 햄서가 편집한 책으로 비폭력과 평화의 윤리라는 부제가 붙어 있다. 한편 『비폭력 평화주의의 역사』는 2010년 폴 마르텐스, 매튜 포터, 마일스 윈츠가 편집한 책으로 바르샤바 강좌라는 부제에서 알 수 있듯 요더의 평화 강의집이다. 이 두 책은 비폭력 사상을 정리한 것으로 특히 톨스토이, 간디, 마틴 루터 킹의 평화운동을 정리하면서 기독교 평화운동의 큰 흐름을 소개하고 있다.

이 두 책의 내용을 기반으로 요더의 평화학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1. 요더의 평화주의는 성서신학과 역사신학에 근거한 평화주의다.

간략하게 말하자면 요더의 평화학은 성서신학과 역사신학에 기반 한다. 요더는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르지 않음을 증명한다.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에 대한 다른 얼굴에 대해 많은 이들은 곤혹스러워한다. 구약의 하나님을 폭력의 하나님이라 이해하는 반면,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를 위해 요더는 현대 기독교인들의 구약 성경읽기에 대한 잘못을 지적한다. 우선 히브리인의 창조 이야기와 전쟁 이야기를 20세기 기독교인의 관점이 아닌, 당시의 문학 저술 방식과 고대 근동에 편만해 있던 신화의 의미를 재정립한다. 그래서 요더에게 구약과 신약은 하나이며, 구약의 하나님을 전쟁의 하나님으로 소개하다가 신약의 하나님을 평화와 화해의 하나님으로 설명해 왔던 기존의 성경읽기 방식을 배격한다. 구약을 읽을 때, 특히 창조 이야기와 전쟁이야기를 당시의 신화나 전쟁이야기의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잘못 읽었다고 일침을 놓는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아들과 성령의 관계도 하나로 묶는다. 구약의 하나님의 전쟁

에 대한 태도가 갑자기 신약의 예수의 평화에 대한 태도로 돌변한 것이 아니다. 화해의 성령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한 하나님으로서 평화의 하나님으로 존재한다.

한편, 요더는 교회 역사를 통해 초기 교회와 기독교 공인 이후의 교회를 나누어 생각한다. 크리스텐덤 이후에도 여전히 신자들의 교회로 이어져 온 평화 교회의 전통을 소개하는 일을 잊지 않는다. 왈데시안, 12세기의 프란체스코회, 15세기의 피테르 첼치스키와 체고 형제회, 16세기의 아나뱃티스트, 17세기의 퀘이커교도들¹³을 소개하면서 고난 받는 메시아를 통해 회복된 비전을 다시금 제시한다. 더 나아가 19세기와 20세기 비폭력 평화에 기반을 둔 실제 인물들을 예로 들어가면서 그들의 비폭력 평화운동의 진면모를 자세하게 설명하였다. 예수만이 아니라, 역사속의 1-2세기 그리스도인들, 신자들의 교회에 등장했던 여러 신앙의 위인들을 소개하였다. 특별히 이러한 평화운동을 실천함에 있어서 그는 세상과 종교와 교회를 구분 짓지 않는다. 콘스탄티누스 황제 이후의 기독교 역사 자체가 세속적이었으며, 전혀 성서적이지 않았음을 밝히면서 그 예를 철저히 탐구해 나갔다. 그러기에 비폭력 평화운동을 논함에 있어 굳이 이 모든 예들이 기독교적일 필요도 없다. 성서의 인물은 차치하고라도 그는 회심한 이후의 톨스토이의 사상과 평화주의자로서의 변화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톨스토이가 어떻게 인도의 무저항 운동을 이끈 간디에게 영향을 주었고, 다시 간디의 평화주의 운동이 어떻게 흑인 해방운동과 시민불복종의 역사를 이끌어내었던 마틴 루터 킹에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잘 보여주었다. 더 나아가, 가톨릭 교회 내의 평화주의 운동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소개하였다. 뉴욕에서 「가톨릭 노동자」 잡지를 간행하면서 “환대의 집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일했던 피터모린과 도로시 데이 라든가, 토마스 머튼, 고든 잔 등의 논지를 따라가며 가톨릭 평화주의를 논

13. 존 하워드 요더, 서일원 옮김, *어린양의 전쟁*, 대장간, 2012, 346.

하였다.

2. 요더의 평화학은 통치자에 대한 근원적 질문을 던진다.

전쟁이 누구에 의해 일어나고 누구에게 속한 것인가? 질문한다. 요더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전사이기는 하나, 전쟁을 일으키는 신은 아니다. 모든 부족의 신은 이미 용사들로 여겨졌고, 각 신들은 그들 자신의 나라를 방어하는 신으로 그려졌다. 그리고 최고의 신이 승리를 이끌어 내고, 나라의 번영이나 불행은 그들 신의 강함이나 약함을 증명하는 모습으로 그려졌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그들 보호자의 해방하는 행동에 의해 규정되었다.¹⁴ 전쟁을 일으키는 주범은 인간이며, 신은 인간이 일으킨 전쟁에 개입할 뿐이다. 구약 전반부에 기록되어 있는 가장 극적인 전쟁장면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은 전혀 싸우지 않는데, 홍해, 여리고 성의 여호수아, 기드온, 여호사밧 등의 예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전쟁의 상황에서조차 이스라엘에게 요구된 것은 야훼를 신뢰하는 것이었다.¹⁵ 왕정시대에 돌입하기 전까지 일어난 구약의 전쟁에서 야훼의 역할은 전쟁 개입이지, 전쟁을 먼저 일으키지 않는다. 그리고 전쟁 그 자체는 이미 인류 역사에 편만해 있던 현상이며, 역사에 들어 있는 이는 요더가 평화를 논함에 있어 하나님의 통치를 전제한다는 의미다. 그러기에 작든 크든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전쟁에 있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했다. 야훼를 신뢰하면 전쟁에서 승리하고, 야훼를 신뢰하지 않으면 전쟁에서 패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다윗 왕국이 형성된 이래로 전쟁의 본질이 변했고,¹⁶ 이 때부터 이스라엘은 야훼보다 왕의 말을 더 신뢰하게 되었다. 이 말은 궁극적인 통치자는 황제도 아니요, 유능한 정치인도 아니요, 참된 주이시면서 왕이신 그리스도가 통치자라는 의미다.

14. 위의 책, 145.

15. 위의 책, 146.

16. 위의 책, 147.

이런 맥락에서 요더는 항상 세상의 질서에 대한 근원적 질문을 던진다. 이 원론을 지양하고 일원론을 설파한다. 궁극적으로 교회와 세상도 본질적으로는 하나이며, 그러기에 평화에 있어 세상 윤리와 교회 윤리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 물론 평화학의 유형은 다양하나, 궁극적으로 성서가 이야기하고 제시하는 평화는 본질적으로 같다고 본다. 문제는 이를 받아들여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하는 입장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런 의미에서 요더의 평화학은 통치자, 즉 궁극적인 신론에 대한 질문으로 귀결된다. 그의 유명한 논제였던 효율성과 신실함도 결국 신에 대한 복종과 신에 대한 신실함으로 귀결된다.

3. 요더의 평화학은 수단/방법과 목적이 서로 분리되지 않는다.

요더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정당화하는 평화주의를 거부한다. 평화를 이루기 위해 폭력을 사용하거나, 거짓의 힘, 이방 신을 의지하는 것은 용납하지 않는다. 그는 평화교회가 주장해왔던 것처럼 목적이 선하다면 방법도 선해야 한다는 논지에 충실하다. 그런 의미에서 출발지와 과정과 도착지는 하나로 연동되어 있다. 많은 사람들은 평화의 방법을 추구함에 있어 효율적인 방법을 찾기 원한다. 최고의 효율성을 따진다. 그러나 요더는 비폭력과 무저항, 즉 십자가를 통한 그리스도의 고난을 제시한다. 사람들에게 우둔하고, 어리석은 방법인 십자가를 제시한다. 그 십자가에 달린 어린 양을 제시한다. 여기에서 사람들이 오해하는 비폭력과 무저항은 방법론이 아닌 본질이다. 전략이 아니라 야훼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행위로 자리한다.

한편, 요더의 평화학은 거시적이면서 동시에 미시적이다. 요더는 사회의 문제를 다루면서 동시에 개인의 문제를 다룬다. 공동체의 문제를 다루면서 동시에 사적인 문제를 다룬다. 그에게 있어서 인류의 문제는 한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고, 세계의 평화는 곧 지역의 평화와 연결되어 있다. 전쟁이라

는 거대 담론을 다루면서 동시에 공동체 내의 갈등과 관계 속의 갈등을 놓치지 않는다. 평화는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는 일원론을 지향한다. 인식론에는 차이가 있으나, 본질을 다루는 존재론에는 차이가 없다.

4. 요더의 평화학은 구체적인 실천사항을 제시한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사랑의 법과 산상수훈 및 원수를 사랑하라는 메시지를 실현 불가능한 이상으로 여긴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는 말을 특수한 사람에게 적용하면서, 그 가르침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규정한다. 성경의 가르침이자, 주이신 그리스도의 가르침인데도 말이다. 만약 평화의 이론이 이해하기도 어렵고 실천하기도 어렵다면, 그것은 폐기되어야 한다.

『어린양의 전쟁』 제3부는 요더의 평화학의 결과로 배태된, 갈등전환학을 소개하고 있다. 특히 요더는 기존에 갈등을 회피하던 신학을 넘어서 갈등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접근 방식을 소개한다. 20세기 후반에 비약적인 발돋움하고 있는 갈등전환학은 평화학이 맺은 결실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 이전에 많은 사람들은 갈등을 부정적으로 보고, 피하는 태도를 보여왔다. 그러나 갈등은 삶과 성장의 표시로서 살아있는 유기체라면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다만 갈등을 대하는 태도와 어떻게 갈등을 해결해야 하는가 하는 과제가 있을 뿐이다. 요더는 갈등을 이해함에 있어, 갈등을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연결 짓는다. 믿음의 공동체 또한 갈등을 회피할 수 없고, 더 나아가 믿음의 주이신 예수조차 갈등을 겪었고, 때론 갈등을 주도적으로 일으켰다고 이해한다.

이러한 갈등의 사례로 요더는 마태복음 18장의 “그리스도의 법”을 소개하고,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총회를 언급한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갈등을 다루는 성서적 방법을 소개한다. 우선은 기꺼이 용서할 준비를 하고, 개

인적으로 갈등을 대면하는 것이다. 어중간한 대화와 타협이 아니라, 이슈를 직면하여 직접 말하고, 말할 것이 더 이상 없을 때까지 서로에게 귀 기울임을 전제로 한다. 이 모든 과정은 성령의 인도아래 이루어지는 하나의 갈등해결의 과정(개인적 발의, 잘못된 형제나 자매를 공동체와 교제로 회복시킴, 공동체와 언약에 뿌리를 둔 절차 진행, 매고 푸는 행동의 구속력)이기도 하다.¹⁷

이러한 갈등해결의 방식은 예수의 완전한 사랑의 실천으로 자발적 언약의 공동체라는 특성을 드러낸다. 이 갈등해결 방식은 인간의 이해관계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에 기인해야 하며, 죽임이 아닌 살림의 대안을 제시하는 모습이기도 하다. 또한 이는 많은 사람들이 목적과 수단을 나누어 생각하는 것과 달리, 목적과 과정과 수단을 하나로 보는 통합적 접근 방식이기도 하다. 요더에게 있어 평화는 그 방향과 목표, 특성과 행동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다음의 다섯 번째 특징과 관련되어 있다.

5. 요더의 평화학은 원인과 의도를 주목하며 과정과 결과를 통합적으로 기대한다.

요더는 물리적 폭력이라는 측면의 현상과 그 결과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그보다 그 물리적인 폭력의 또 다른 측면인 계획과 의도에 초점을 맞춘다. 그래서 요더의 평화학의 근거에는 “신의 원래 의도”와 이를 제대로 반영해야 하는 “인간의 원래 의도”를 규명하려는 노력이 자리한다. 이는 산상수훈에 등장하는 “너희는 ~~~ 하는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여섯 가지 새로운 소논제와 관련되어 있다. 많은 이들이 결과에 주목하고, 효율성에 주목하는 동안에, 실제로 드러나지 않은 동기와 의도를 놓치곤 한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비록 물리적으로 드러나지

17. 존 하워드 요더, *어린양의 전쟁*, 280, 284, 285.

않았다 할지라도 이미 존재하는 사람의 본의를 들추어낸다. 이렇게 새로운 윤리로 규정된 예수의 가르침의 결론은 마태복음 5:48의 온전함으로 귀결된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러한 맥락에서 요더의 평화학은 하나님 나라의 윤리이자, 무저항과 완전성을 표방한다. 그리고 의도, 시작, 과정, 결과에 이르기까지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초청한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의 결국은 어린 양의 희생과 관련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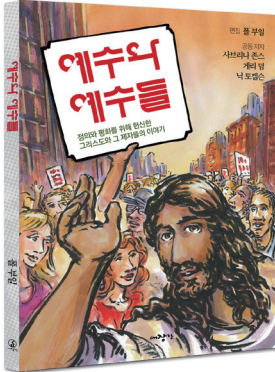
다른 글에서와 같이 평화를 주제로 한 요더 글의 핵심에는 늘 같은 질문이 자리하고 있다. 독자들은 피해갈 수 없는 이 질문 앞에서 있다. 피해가고 싶어도 무릎을 다시 곧추 세워 그 자리로 가야 할 만큼 이 질문은 중요하다. 그 질문은 1) 예수는 그리스도인가? 2) 그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가? 하는 질문이다. 이 질문에 “예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평화의 왕이신 어린양의 고난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다. 한편 이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평화학을 논의한다면,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 어린양의 전쟁에 온전히 참여할 자격은 주어지지 않는다. 적어도 요더의 평화학에 있어서는...

사족1: 요더 연재를 쓰면서 많은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다. 요더를 언급함에 있어 독자는 이 비판의 날을 우선은 요더의 삶 위에 치켜들고 동시에 그 날을 다시 꺾어 스스로에게 돌릴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 요더를 알고, 그의 삶과 잘못을 알기 때문이다. 특히 평화학에 있어서 요더를 버리라고 하기 전에, 과연 역사상 단 차례도 지배자나 국가가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행하는 권력 투쟁에 대해 제대로 항변하지 않은 교회나 그리스도인으로서 과연 요더의 평화학을 그렇게 쉽게 내던져도 되는가 물어볼 수 있어야 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추천사를 쓴 존 스토틀러의 말처럼, 시대마다 교회의 주적인 어용 선지자들과 어용 목사들이 판을 치고 있는 역사의 기술과 과학기술의 산물인 최첨단 무기를 사들이고, 최첨단 무기를 통해 학살을 일

삼았던 군부와 정부에 대해 일말의 대안조차 제시하지 못했던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얼마만큼 평화에 기여했는지 함께 물어야 할 것이다. 이런 면에서 요더의 악행과 천재성을 빙자한 그의 욕망과 교만과 탈선은 버리되, 그의 평화에 대한 업적은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다.

* 평화학에 관련된 기독교 저술가들의 글을 보려면 *Nevertheless* 뒤에 실려 있는 서지목록을 참고하라.

예수와 예수들



폴 부일 외 지음 / 배꽃나래 옮김 / 대장간

정의와 평화를 위해 헌신한 그리스도와 그 제자들의 이야기

누가 예수는 단지 온화한 선생이며, 영적 구세주일 뿐이라고 했는가? 예수와 그를 따른 열정적인 제자들은 새로운 대안 사회를 예고함으로써 권력자들의 마음을 어지럽게 했다. 아마도 예수가 오늘날의 사회나 정치적인 문제에 직면한다면,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하는 도전으로 다가올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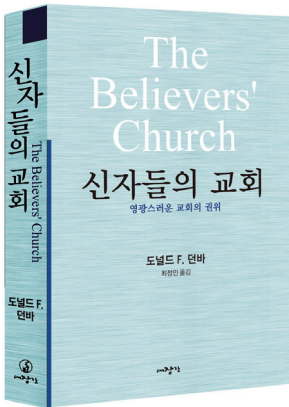
이 책은 예수와 그의 사회적 메시지가 무슨 뜻인지 진지하게 탐구하는 첫 만화책일 것이다. 이 책은 예수, 유럽의 종교개혁가들, 미국의 시민평등권을 이끄는 지도자들, 세계적으로 알려진 정의와 평화 운동을 이끈 사람들의 이야기를 독특하게 다시 들려주려고 세 명의 만화가가가 참여했다. 도발적이며 영적으로 힘을 주는, 행동하는 신앙의 파노라마인 이 책이 그 결과물이다.

< 추천의 글 >

이 책은 사해사본 보다 더 중요하다. <툼 헤이든, The Lost Gospel of the Earth 저자>
모든 세대에, 모든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들이 나타나 모든 삶에서 숨쉬는 성령이 보여주는 진실을 말합니다. Radicals는 뿌리에 영양분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들처럼 살려면 이 책처럼 그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랍비 아서 와스코, 'Godwrestling - round 2' 의 저자>
이 책은 역사와 믿음을 바탕으로 우리가 끊임없이 사회에 저항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E. 에서버트 밀러, 하워드 대학교 아프리카계 미국인 자원센터 책임자>
이 책은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제자들, 특히 아나뱃티스트들의 행동을 아름다운 언어와 잊혀지지 않을 그림들로 풀어낸 신앙적이고 희망적이며, 평화적이면서 기념비적인 작품입니다. <빌 카우프만, 'Ain't My America and screenwriter of Copperhead'의 저자>
권력자들은 그림 속에서 평화로운 어린 양과 앉아계시는 예수님을 선호하고 죽음 뒤에 다른 세상이 있다고 우리를 안심시킨다. 이 책은 독자들에게 각자가 서 있는 곳에서 죽음에 도전하는 삶이 무엇인지 보여준다. <조나단 윌슨-하트그로브, Stranger at My Door 저자>

신자들의 교회

도널드 F. 던바 지음 / 최정인 옮김 / 대장간



신자들의 교회와 역사의 특성

“신자들의 교회”라는 용어를 새롭게 만들어낸 이는 막스 베버(Max Weber)였다. 그는 개신교 윤리를 다루며, 새 시대를 연 저술에서 아나뱃티스트와 퀘이커 신자를 기술하면서 이 용어를 사용했다. 베버는 이러한 집단이 지상 교회를 “의인과 악인 양쪽을 반드시 포함할 수밖에 없는 기관으로서, 사후 종말을 대비하는 참된 토대 중” 한 종류로 보는 것을 거부하면서, “거듭남을 체험한 신자, 오직 그들로만 구성된 공동체”를 추구했다고 주장했다. <저자 서문 중에서>

< 추천의 글 >

이 책은 16세기 아나뱃티스트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교회의 투쟁과 갱신에 대하여 가장 포괄적이고 권위있게 교회의 역사의 흐름을 분석한다. 이 책은 이 분야의 권위있는 저작이며, 학자들과 다른 전통의 그리스도인에게도 필독 도서다. <Franklin H. Littell >

이 책은 이 분야의 고전이다. <John H. Yoder >

전통의 견지에서 신자들의 교회에 대한 종합적 설명은 이전까지 나온 것중에 최고이다. 이 책은 급진적 개혁의 유산을 이해하려는 가톨릭 신자나 주류 개신교인들의 기본 문서이다.

<Journal of Ecumenical Studies >

저자는 종파형 교인들을 감탄할만하며 포괄적으로 다루어 우리의 비전을 자극한다.

<The Christian Century >

하나님의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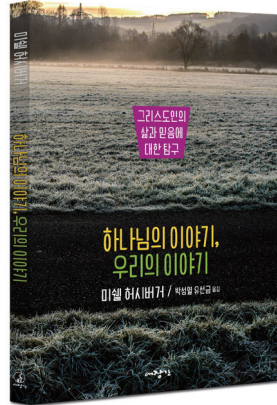
미셸 허쉬버거 지음 / 박성열 유선금 옮김 / 대장간

그리스도인의 삶과 믿음에 대한 탐구

왜 교회가 하나님께 그렇게 중요한가?

우리 삶의 어느 지점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가?

나는 어떻게 내 삶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을까?



< 추천의 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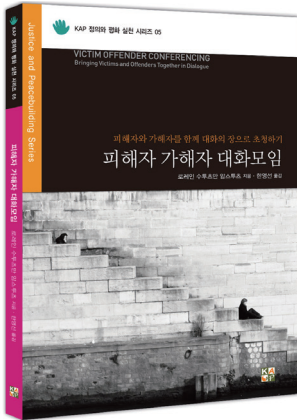
이 책은 성경의 흥미로운 이야기와 매력적인 대화로 독자를 초대한다. 이 책은 매우 사려깊은 책이며 성경 이야기의 빛 속에서 자신의 신앙 이야기를 탐구하려는 많은 사람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마이클 노벨리, Shaped by the Story 의 저자>

미셸 허쉬버거는 가치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것은 결코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인간의 역사를 통해 믿음을 보여준 사람들의 이야기다. 이 책은 하나님의 서사와 계속되는 이야기 속에서 당신의 삶에 활기 넘치는 상상력을 불어넣어 줄 것이다. <데이비드 M, 시노스, Children's Ministry That Fits의 저자이며 Faith Forward의 설립자>

개인적으로 아나뱃티스트의 성경 이야기에 대한 이해를 탐구하는 최상의 책을 찾고 있는지, 침례(세례) 교육을 위한 최고의 교재를 찾고 있는지? 『하나님의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는 후원자, 목회자, 부모, 그리고 교사를 위한 탁월한 선택이다. <켄트 밀러, 미국 메노나이트 교회 교단 청소년과 청년 목회 담당자>

이 책은 신앙 문제에 활기찬 만남을 돕는 바른 요소들을 모두 가지고 있다. 간결하지만 단순하지 않고, 쉽지만 매우 지적인 대화로 독자를 초대한다.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 자유롭게 질문하지만, 상투적인 해결책을 제공하진 않는다. <데이브 버건, 캐나다 메노나이트 교회 크리스찬 포메이션 대표>

피해자 가해자 대화모임



로레인 수투츠만 암스투츠 지음 / 한영선 옮김 / KAP

피해자와 가해자를 함께 대화의 장으로 초청하기

회복적 정의 · 피해자

피해자 가해자 대화모임은 가해자들이 피해를 입힌 사람들에게 책임을 지도록 하고, 피해자에게는 어떻게 바로 잡을지에 대하여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방식으로 발전해왔다.

원주민들의 전통에 뿌리를 두고 있는 대화 모임은 “화해(reconciliation)”라는 개념 아래 피해자의 고통에 역점을 둔다. “조정(mediation)”이라는 용어는 피해자들이 들었을 때, 자신들의 피해가 혐상될 수 있다는 느낌 때문에 기피된다. 한편 피해자 가해자 대화모임은 과정에 있어서 참여적 특성을 갖고 있다. 그리고 누가 참석할 것인지에 대하여도 유연성을 보이며, 만약 적절하다면 보다 넓은 공동체의 멤버를 위한 자리를 만들 수도 있다.

이 정의와 평화 실천시리즈는

- 왜 사람들이 이 대화모임에 참여하려고 하는지
- 어떻게 절차가 작동하는지 • 심각한 사건을 어떻게 다루는지
- 과정에 있어서의 장벽과 유익은 무엇인지 실천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다.

KAP 정의와 평화 실천 시리즈

1. 학교 현장을 위한 회복적 학생 생활교육 - 로레인 수투츠만 암스투츠, 주디H. 몰렛
2. 서클 프로세스: 평화를 만드는 새로운/전통적 접근방식- 케이 프라니스
3. 갈등 전환- 존 폴 레더락
4. 트라우마의 이해와 치유 - 캐롤린 요더
5. 피해자 가해자 대화모임- 로레인 수투츠만 암스투츠
6. 회복적 정의 실현을 위한 사법의 이념과 실천 - 하워드 제어
7. 전략적 평화 세우기 - 리사 셔크
8. 공동체를 세우는 대화기술 - 리사 셔크 & 데이비드 캠프

아나뱃티스트 크리스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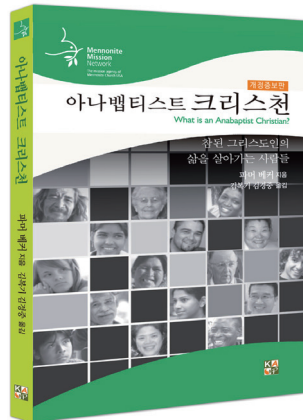
파머 베커 지음 / 김복기 김경중 옮김 / KAP

아나뱃티스트 크리스천이란 무엇인가?

지구의 여러 곳에 사는 사람들은 조직이나 기관 혹은 정치적으로 타협을 해가는 기독교에 대한 환상에서 깨어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과 더불어, 근본적으로 초대교회의 신앙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재세례신앙운동과 자유교회 전통에 대한 관심이 점증하고 있다. 메노나이트 교회 목사요 교육가로 평생을 살아온 파머 베커는 이 책에서 아나뱃티스트들이 이해하고 있는 성경의 핵심을 다음 세 가지로 간간히 요약하였다.

1. 예수는 우리 신앙의 중심이다.
2. 공동체는 우리 생활의 중심이다.
3. 화해는 우리 사역의 중심이다.

이 책의 저자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기독교의 견해 중 성경의 기준을 벗어난 기존의 기독교적 견해들과 아나뱃티스트의 견해들을 대조해 가면서, 예수에 대하여 새로운 시각을 갖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 보다 충실하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화해 사역에 열정적으로 동참하도록 독자들을 초대하고 있다.



아나뱃티스트 교회의 주석 번역 시작

대장간출판사에서 **신자들의교회성서주석**(Believers Church Bible Commentary Series) 번역을 시작했습니다. 원서는 총 46권의 성경을 번역했으며 지금도 작업중인 주석입니다.

1차로 <에베소서>, <요한복음>, <사도행전>, <호세아, 아모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서 연구를 하거나 설교를 준비할 때 아나뱃티스트 신학의 관점과 묵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대하시고 응원해 주십시오.

모든 이를 위한 요더 시리즈 3권 중 2권도 번역 중입니다. *Real Christian fellowship, Revolutionary Christian Citizenship* 입니다. 기존의 책보다는 읽기가 쉽다는 번역자의 이야기가 있으니 기대하셔도 좋을듯합니다. 내년 가을 경에 나올 예정인 **한국인이 쓴 요더 평전** 형식의 책도 있으니 요더 읽기에 도전하셔도 좋겠습니다.

한국에 소개된 적이 없는 아나뱃티스트 평신도 신학자 **체드 마이어의 책도 준비 중**입니다. 체드는 시간의 반을 성서연구에 반을 사회활동에 할애할 정도로 사회활동을 많이 하는 형제로 KAF에서 미국 컨벤션에 참석했을때에도 친절하면서도 인상깊은 관점을 전해 준 저자입니다. 첫 책은 *Say to This Mountain*입니다. 이 책은 *Binding the Strong Man*의 축약본이면서 여럿이 공동으로 썼습니다. 정치 사회학적 시각으로 마가복음의 제자도를 다룬 것으로 한국에서는 많이 인용되면서도 직접 저서가 소개된 적이 없습니다.

예수촌교회 차성도형제의 신앙에세이 『**성서에 신앙을 묻다**』도 7월에 출간할 예정입니다.

(정리:배용하형제)

KAF(www.wkaf.net) 관련 웹사이트 주소

교회 www.sbrookchurch.org (셀브룩메노나이트한인교회)

www.gracepeace.org(은혜와평화교회) ■ www.facebook.com(꿈이있는교회)

www.jvchurch.onmam.com(예수촌교회) ■ www.facebook.com(평화누림교회)

단체 www.kac.or.kr(KAC) ■ www.narpi.net(NARPI동북아평화훈련원)

www.kopi.or.kr(한국평화교육훈련원) ■ www.connexus.co.kr(커넥서스)

www.kapbooks.com(KAP) ■ www.daejangan.org(도서출판 대장간)

www.wcfcgw.nayana.kr(개척자들) ■ www.Reconciliansian.com(리곤실리아시안)

▶ 후원하실 단체를 안내합니다

개척자들 - 비소득공제용 : 국민은행 068801-04-014046 (사)개척자들

- 소득공제용 : 국민은행 093401-04-124532 (사)개척자들

ReconciliAsian(디아스포라 화해자들)

- 비소득공제용 : 씨티뱅크 892-01467-259-01 허현

KAC 스탠다드차타드 425-20-403665 한국아타뱃티스트센터

KOPI 국민은행 992801-01-260930 박윤서(한국평화교육훈련원)

꿈이있는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농협 335-0007-6901-83

KAF 재정 사용 내역 (2015. 4. 1~2015. 6. 30)

이월 -487,160

수입 690,000

50,000(꿈이있는교회) 60,000(예수촌교회) 60,000(은혜와평화교회)

20,000(쥬빌리교회), 90,000(평화누림교회) 200,000(문선주 후원),

100,000(은혜와평화교회 후원), 110,000(제주모임 잔액)

지출 867,800

720,000(9호 제작) 147,800(저널 발송비)

잔액 380,640

네팔 구호후원금 집행내역 • 수입: 1,155,000원(70,000(꿈이있는교회), 200,000(은혜와평화교회), 685,000(하늘가족교회), 200,000(평화누림교회)) • 지출: 1,155,000원. 바보들꽃 <http://www.hillofhope.or.kr/>

※ KAF 후원금과 회비(정회원)는 저널 발행과 KAF의 선교사업에 사용합니다.
우체국 311639-01-004603 배용하(KAF)